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2월 21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김주의 법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법구경〉

법회 안내

능인정사 (02)462-133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부부법회 첫째 일 오후7시
직장인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육바라밀회 매월 초 4일(음)
양로원 봉사
무학여고불교반 토 오후2시

광주 관음사 (062)223-7666
가족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
가정법회 매주 목 오후3시
거사법회 매주 월 오후6시30분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화월선원 (02)3442-4781
관음기도법회 매월 24일(음)
불교교리강좌 매주 화·목·일

마하선원 (02)952-0666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마하불교학교 월·화 오전11시

정법사 (02)762-385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영화사 (02)444-432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성불회연화법회 토 오후3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포항 대성사 (0562)47-7563
거사림법회 매월 16일 오후7시
청년법회 1, 3주 수 오후7시30분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합창단법회 매월 29일 오후1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초하루

성남 망경암 (0342)753-3090
촛불기도법회 매일 오전10시
열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지혜법회 매월 8일 오전10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부처님 국민학교 세운다

주부모임 '도솔회' 서울에 설립 발원

"새싹 불심에 자부심을" … 기금조성중

"불교국민학교를 세우자."

아이들이 불교이념에 따라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 불교국민학교를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불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민학생을 둔 가정주부들의 모임인 도솔회(회장 이정희)로, 원력성취를 위한 법회를 운영하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5명의 불자가 불교국교 설립을 발원한 도솔회는 금년 4월16일 창립과 함께 현재 1백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솔회가 세우고자 하는 불교국교는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각학년 1학급 이상의 사립학교로 5년내에 설립, 성과에 따라 지방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솔회 이신숙(불광유치원 원장)회원은 "불교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타종교어린이와 종교적 갈등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라며 "종교의 편협성없이 불교 이념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불자주부들이 앞장서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립국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은석국민학교(동국학원)가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종립학교인 반면 개신교는 서울에만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용지와 수익용 기본재산 등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의한 규정만 맞으면 학교설립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상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따르면 부지는 학교용지 최소면적 4천6백㎡(1천3백91평), 체육장 기준면적 3천㎡(9백7평)등 2천2백98평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급당 7백16만7천원으로 학년당 1학급일 때 총4천3백여만원만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불교사립국교의 경우 사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 불교국교의 설립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국교 담당자들은 "국민학교는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육성회비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한 육영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도솔회 이정희 회장은 "불교국민학교 설립은 대형불사로 뜻있는 사찰이나 불자들의 동참이 요구된다"며 "도솔회가 모태가 되어 불교국교 설립이 교계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솔회는 매주 넷째 수요일 서울 약수선원에서 법회를 보고 있으며 서울시내 소재 소아과 병동에 어린이 불서를 보급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준엽 기자)



사랑의 대행진 … 따뜻한 세밑 지난 9일 신세계 백화점앞에서 열린 사랑의 대행진 개장식에는 심종스님등 각 종교지도자, 김영애씨 등 인기연예인, 상록 보육원 어린이들이 이웃사랑 모금 대행진을 펼쳤다.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는 청소년 가장, 복지시설아동, 무의탁노인을 위한 사랑의 대행진운동을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사진 박재완 기자〉

목어

불교방송이 또 20곡의 새 찬불가를 탄생시켰다. 지난 12일 '94 음악공양의 밤'(국립극장)에서 이들 새 찬불가를 선보임으로써 불교방송이 만든 새 찬불가는 모두 81곡이 됐다.

불교방송이 찬불가 1백곡 제작 보급 5개년 불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 아무 규정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70년 가까이 제작돼 온 찬불가의 품질기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교리에 준거한 가사,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도 불교적 특색과 음색을 살려 낼 수 있는 선율을 원칙으로 삼아 귀의·예배·찬탄·공양등 법회의식 순서와 절기에 따라 두루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매년 20곡씩 만들어 냈다.

'새 찬불가'를 부르자

이미 발표돼서 애창되고 있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까' 같은 곡은 그 곡명만으로도 올바른 신행의 방향을 일깨워준다. 올해도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등 좋은 곡이 여러 곡 나왔다.

"책을 쌓아 놓고도 읽지 않으면 소장 안한 것과 같다."는 어느 스님의 말처럼 찬불가를 만들어 놓고 부르지 않으면 안 만든것과 다름없다. 아니 만드느리 애쓴 수고와 경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다.

이제 불교방송은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마련해 새 찬불가 부르기에 주력해야했다. 그리고 새 찬불가 발표에 나섰던 합창단들도 불교방송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라도 찬불가 부르기 운동에 나선다면 부처님을 예경·찬탄하는 불음의 메아리가 전국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래야만 불교의 음악법회도 가능해지고, 불교방송의 찬불가 5개년 불사도 의미를 갖게된다.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연꽃마을 유공자 시상·사례발표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제1회 전국 연꽃마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용인양로원, 노인무료병원 운영 및 노인문제연구, 상담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연꽃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을 초청,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대회를 마련한다.

대회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 남궁단씨(72세,서울 강남구)에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1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이어 불교방송상을 수상하게되는 '사랑의 공간 모임' 이은풍 회장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가 있게 된다.

2부에서는 사물놀이, 승무공연 및 자원봉사단체별 장기자랑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행사와 관련해 "연꽃마을이 그동안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큰 무리없이 원만히 운영해 올수 있음은 몸과 마음을 바쳐 뒤에서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자원봉사회의 조직과 체계를 갖춰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배출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불우이웃에 성금물결

각종단 단체 가스폭발이재민·모자세대 등에

연말을 맞아 종단과 각 단체가 불우이웃에 성금을 전달, 훈훈한 세밑을 만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0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성금 1천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월주스님은 7일 아현동 지하가스저장소 폭발사고 이재민 숙소를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박서봉)도 지난 9일 아현동 지하가스저장소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방문하고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한 혜초스님(태고종 부원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고원인규명과 완상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8일 봉행된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혼국재'에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모금된 것이다.

한편 남편을 잃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정을 이끌고 있는 '영세모자세대'에게 1천5백만원의 성금이 전달된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민자당 경남도지부대강당에서 제5회 영세모자세대 위안법회를 봉행, 성금을 전달한다.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가정에 훈훈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마산시와 창원시, 군에서 추천한 모자세대 50세대가 초청된다. 이들 모자세대에는 겨울동안의 생활비로 각각 30만원씩이 전달된다. 이번 성금은 마·창 불교연합회 소속 40여 사찰이 모금한 것이다.

항토사학자 내고장 역사 밝힌다 6면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 활짝 14면
핸들불심 전국포교망 개통 15면

의정부용현동건영아파트분양

교통·환경·건설회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주거공간!

교통환경 서울보다 서울이 더 가깝다.
동부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부지역까지 5분대,
구리·판교로 연결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관통,
아파트단지 뒤로 지하철 7호선 통과예정.

자연환경 도봉산·수락산과 함께 산다.
북한산 국립공원인 도봉산과 수락산에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해 쾌적한 삶을 보장합니다.

생활환경 대규모단지라 문화시설이 풍부하다.
신도시 못지않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교육, 문화, 쇼핑,
레저 시설이 완비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성의 건영 앞선 기술로 선진주거문화를 창조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높은 청약율로 확인된 명성의 건영이
앞선기술과 노하우로 최신의 시설을 갖춘 첨단아파트를
건설합니다.



■분양규모

평형	세대수	평형	세대수
23	372	28	318
33	192	43	48

총 930세대(9개동)

분양안내
• 의정부주택전시관 : (0351)876-9470~3
• 건영종합주택전시관 : (02)594-6100~7
• 건 영 : (02)369-7326~7
• 건 영 건 설 : (02)528-0673, 0675

주택전시관 및 현장위치도



株式會社 建 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기계회관

주식회사 건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7 일송빌딩

열린마당 참회

밝은 내일은 깊은 반성에서

사설

사흘이 멀다하고 터지는 엄청난 대형사고의 충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째 이런 일이"를 연발 뇌까리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와 호수 도처에서 연일 터지는 참사로 인하여 개혁과 세계화를 내세우고 있는 문민정권의 국정관리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성수대교의 붕괴, 공무원들의 세금도둑질,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대참사, 인간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흉악범죄…. 이러한 엄청난 사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지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허무감과 좌절감을 주체할 길이 없다. 그야말로 군사문화시대의 신통력(?)이 모두 소진된 탓인가 아니면 유형, 무형의 「기초공사」가 너무 부실한 탓인가. 어쨌든 불행한 일들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모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또 어디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당국은 각종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부실공사, 안전관리 태만, 사고대처의 원시성 등 잘못된 원인과 고질적인 병폐를 샅샅이 가려내고 과학적인 진단과 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대적인 행정조직의 개편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깊은 참회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참회와 반성이 없이는 구시대의 만성적인 사고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회를 통한 우리모두의 정신적 사고와 의식의 개혁이 없이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밝은 내일을 열 수 없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여러가지 악업을 짓고서도 숨기어 뉘우침이 없어서 마음으로 부끄러워 하지 않고, 인과업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달려들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악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음을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여기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자. 물론 국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권력자들, 많이 가진자들 처럼 혜택받은 중생들이 더 많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이를 막지 못한 잘못을 후회하면서 참회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부처님의 자자와 포살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참회가 생활화된다면 한층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과 대중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어 청정성과 정직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세계화의 구호를 외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민족의 주체성, 자존심부터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만이 나날이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밝은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저무는 94년을 되돌아 보면서 한해를 돌이켜 참회하는 것은 불자다운 삶의 자세일 것이다.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천수경〉 속의 참회문과 〈백팔대참회문〉을 간추려 읽으면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자.

천수경

산 목숨 죽인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남의 것 훔친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삿된 음행 범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거짓말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꾸밈말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이간질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나쁜 욕설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욕심부린 죄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다.
성질부린 나쁜 버릇 이제 참회하옵니다.
어리석은 생각들 이제 참회하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악은 본래없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을 비울 때 죄악 또한 사라지네.
죄악도 마음도 모두 다 사라지면
이것을 진실로 참회라 이름하네.

백팔대참회문

온 세상의 모든 불·세존과 항상 사바에 계시옵는 모든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로써 저희를 거두어 주소서. 제가 이 세상과 전생 그리고 아득한 옛적부터 많은 죄를 제 스스로 짓기도 했고 혹은 남을 시켜 짓기도 했고 또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불탐이나 스님 도량 등에서 스스로 훔치기도 했으며 혹은 남을 시켜 훔치거나 남이 훔치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다섯가지 무간죄를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남을 시켜 짓기도 했으며 또는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열가지 악한 행을 제가 스스로 짓기도 했으며 혹은 남을 시켜 짓기도 하고 또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까마득히 잊기도 했고 어렴풋이 생각나기도 하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귀나 축생 등 갖가지 악도에 태어나거나 변지에 미천하게 태어날 이러한 죄를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제 불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다 잘아시오니 보살피시고 거두어 주소서.

거듭 불세존께 아뢰옵니다.
마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공덕 회향하듯이 저도 역시 공덕을 회향합니다.
지은 바 모든 죄를 참회하오며
모든 복덕 남김없이 함께 나누며
부처님을 청하온 공덕으로써
무상 지혜 이루기가
원이옵니다.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중생의 가장 훌륭한 무량한 공덕을
제가 이제 지성으로 귀의합니다.

넓고 크고 수승한 지혜심으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깊이 믿사오며 보현보살 크신 행과 크신 원으로 빠짐없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예로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것임에 제가 이제 모든 죄 참회합니다.

부처님 찬탄하고 공양한 공덕,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법문 설하시길 청하온 공덕, 중생과 불도에 모두 회향합니다.
원하옵나니, 수승한 이 공덕 부처님 법계에 회향하오며 진리와 사상(事相) 불법과 승가(僧伽) 법계와 세상이 서로 막힘없는 삼매인,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의 바다, 제가 이제 남김없이 회향하오니 중생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잘 못보고, 트집잡고, 비방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법에 집착한 이 모든 죄가 낱낱이 소멸되고 생각생각 큰 지혜 온 법계에 널리 퍼져, 중생들 한결같이 제도되어지이다.

시론

불교 세계화 기초부터 다지자



이 강 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

세계무대에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계화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생물학적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스포츠나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으나 평화와 자비를 지향하는 불교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9세기 이래로 서양의 문물제도와 사상과 종교가 우리나라에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간 개화(開化)니 국제화니 하면서 새로워 보이는 정책들이 표방되었지만 알고보면 결국 서양인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호응하여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만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서구화의 대세 속에서 서양의 문물제도와 사상과 종교는 갈수록 득세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는 갈수록 영락(零落)해 가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그동안 일부 불교인들이 저지른 추태를 식상할 정도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교가 앞으로의 세계문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일까? 그러나 불교사상이 인류문화의 정수로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라면 그 정신을 현대사회에 한 번 더 되살려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석가모니 당시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당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하였던 법문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현상 때문이다.

전문지식 수용 절실

그렇지만 우리가 석가모니 당시의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그분의 설법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원화(多元化)된 기술정보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얼켜있고 전문화되어 있다. 오늘날 제기된 어떤 문제도 전문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그들 기술과 지식을 인류사회의 목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문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현대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발달한 학문의 성과를 외면하는 종교보다 그들을 수용하는 종교가 더욱 더 세계화될 것이다. 물리학·생물학·수학을 앎으로써 물리학·생물학·수학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통계학·경제학을 앎으로써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속공학·전자공학을 앎으로써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가 앞으로 세계문명을 주도하려면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소외받기 쉬운 노인과 불우한 소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고승들의 가르침 널리펴야

이들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보다 이들 문제를 품에 안아들이는 종교가 보다 세계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 해결에 앞서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기초작업이 튼튼해야 한다. 불교정신을 현대사회에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불교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불교계의 교리 연구는 일본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불교학계는 층이 두텁고 넓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려면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수 밖에 없다. 원효, 의상, 원측, 경흥, 지눌 등 고승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없이 불교를 세계화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개인이 수공업(手工業)식으로 수행할 수 없다. 종단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교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는 자료제공 문제도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서적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역경사업이 크게 확충되어야 하며, 전제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역경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연구되어 저술되고 번역된 자료들은 각급 학교교육을 통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비하여 불교계통의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불교 종단에 학교를 많이 설립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육기관들 만이라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국민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 등 각급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불교진리를 전달하고 우리나라 고승들의 정신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세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인 모두가 현대사회의 성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염원을 연구와 저술, 번역과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뜻을 간절하게 세운다면 현대사회에서 불교정신이 또다시 꽃필 수 있을 것이다.

KAL WORLD TOUR KAL월드투어
불기 2539년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 '95. 1. 6~1. 15. (9박 10일)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불교 성지순례 10일
요금 ₩ 1,240,000
경유지 델리, 알라하바드 (1 - 바라나시 (1 - 부다가야 (1-라즈기르, 나란다, 파트나(1-바이샬리, 쿠시나가르(1-룸비니, 발랑프리 (1 - 럭나우, 아그라 (1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단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발랑프리 지역 4인 1실)
인도 문화여행 10일
요금 ₩ 1,400,000
경유지 델리 (1 - 바라나시 (1 - 카쥬라호(1 - 아그라 (2 - 파테프르시크리, 자이프르(2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W19,000은 불포함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W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 정부인가 조건임.
韓進觀光
서울시 중구 봉래동 1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73
서울 (02) 726-5750 대전 (042) 252-2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61) 745-3070 광주 (062) 228-0041
제주 (064) 42-7217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신행수첩

여성불자들 정진 다짐
삼일선원 지장불 점안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아름다움은 역시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연륜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15년을 이렇듯 한결같이 불법포교와 신행활동을 해온 탄허재단부설 보문회(회장 박대도심)가 지장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장회를 결성한 것은 지난 90년 9월. 이 취지에 따라 지장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삼일선원 법당에 새로이 지장불을 모시고 봉불식을 거행한다.

이날 봉불식에는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지장회 신도 70여명이 참석한다.

여성불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보문회는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는 물론 한달에 한번 사찰순례를 갖고 불법삼매에 빠져든다.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등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지장회는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불법의 진리를 느낀다. (02)238-5253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주지 현장)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재가불자들을 위한 6박7일 출가생활 수련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부터 95년1월1일까지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염불, 선체조, 사경, 운력등 수련의 장을 마련한다. 항상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없는 삶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단 1주일간 만이라도 수행자의 삶을 체험해보자.

(0694)52-1755

'우리는 포교사"
금강경 · 불교의식 강의

불자들은 누구든 포교사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 망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해 불교의식을 집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포교는 없을 것이다. 전문포교사가 아니어도 불자라면 이웃에 어떻게 삶의 진리를 전할까라는 고민을 풀어주는 배움터가 있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개설한 의식교육 참선교육 대승경전 연구모임이 그것이다.

매주 화 · 수요일 오후7시 금강경 강의(종범스님 · 중앙승가대교수)와 불교의식교육(운곡스님 · 홍천 안양사주지)이 진행되고 있다. 관심있는 불자라면 누구든 참석 할 수 있다.

02)732-1206/7

"지난날을 참회한다"
전주교도소 송년법회

한때의 잘못을 참회하며 새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다. 이들 재소자들 가운데 불자들이 모여 한해를 결산하는 법회가 마련된다.

전주교도소 불교 교화위원회(위원장 남파스님)가 22일 오후 1시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봉행하는 송년대법회다.

이날 송년법회에서는 불자재소자들이 서로가 도반이 되어 공부한것을 한자리에서 펼쳐보일 예정이다.

법회를 통해 배운 찬불가를 비롯 연극을 공연한다.특히 참회와 앞으로의 바램이 담긴 발원문도 낭송된다.

전주교도소의 불자 재소자들은 그동안 매주 한번씩 법회를 가졌다. 지난 동안거때는 40여명의 재소자가 결제에 들어가 매일 예불과 108배를 하고있다. 이렇게 공부한 불자재소자 7백여명이 이날 서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불교교화위원회가 마련한 전주교도소 송년법회는 일반인도 동참할 수 있다. 따뜻한 이웃의 정을 필요로 하는 재소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652)75-0108

산사서 배우는 예절 · 극기
청교연, 불교학교개설

청명한 겨울산사는 파란 호수에 비친 어머니 손같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넓은 도량, 사철 푸른 소나무, 좁다란 계곡에서 흐르는 명경지수, 그 속에서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정화되지 않을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김선일)가 주관하는 겨울 산사불교학교가 오는 27일 화성신흥사에서 청소년들을 초대한다.

초 · 중 · 고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겨울산사불교학교는 레크레이션, 공동놀이 등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 청소년윤리등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예절교육과 극기훈련도 있고 참선과 철야정진을 통해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도 있다.

움츠려들기 쉬운 겨울, 어깨를 펴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 힘껏 겨울을 안아보자.

(032)577-5123

백내장 · 사시환자에 새삶
먼눈 밝히는 광명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아픔이 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모인다면 고통도 줄어들수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진주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았다. (사)청교연 진주지부 부설 먼눈 밝히는 광명회(총재 관응스님)다.

지난 10월1일 인간방생의 차원에서 모임을 결성, 지금까지 백내장 · 사시환자 7명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짧은 기간에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들의 힘이 모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앞을 보지못하는 이웃이 많다. 비록작은 성의 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더 많은 이들이 광명을 찾을 것이다.

광명회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0591)751-3384

무의탁 노인위안 잔치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사랑으로 마련하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는 인정의 훈훈함을 더욱 느끼게 한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매년 실시해 오던 지역주민과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다.

올해는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진송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욱 즐겁고 유쾌한 감사와 위안의 밤이 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후 5시반 길음복지관 우정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의탁 노인및 지역주민 감사의 밤'은 불교방송과 불자가수회의 후원으로 진송남부부, 김흥국, 남궁옥분, 장미화씨등의 인기가수들을 초청했다. (02)985-0161~4

웃음과 선율속에 한해를 돌아본다

31일 조계사 중 · 고학생회 송년 예술잔치

한해를 마무리할 때다. 조용한 곳에서 한해를 뒤돌아보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함께 어울렸던 동기, 선후배들과 모여 한해의 뒤우침과 다짐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조계사 중 · 고학생회가 오는 31일 오후4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제32회 「송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예술제는 지도교사나 선배들의 도움없이 학생회원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주제도 "다시 태어나는 우리들의 다짐"으로 정했다.

대본을 직접 작성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과 학교생활의 희로애락을 담은 단막극이 준비됐다. 깊어가는 계절마저도 잊게 해줄 시낭송과 피아노, 플룻 연주가 고운 선율을 뽐낼것이다. 중창도 있고 바라밀춤도 있다. 또 설장고를 포함한 사물연주도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 학생회 활동과 올 한해 교계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엮은 일년뉴스는 많은 웃음과 함께 교계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견해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들의 일년을 되돌아보며 더욱 희망찬 내일의 문을 열게 된다.

부모님도 모시고 친구, 동문선배들도 모신다. 학업에 쫓겨 많은 연습은 못했지만 건강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쁠것이다. 온가족과 함께 우리의 동량들이 펼치는 송년잔치에 참여해 보는것도 뜻깊은 한해의 마지막날을 보내는 것이 될 듯하다.

(02)734-8179



◇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은 동산불교대학이 최근 금강경 강좌를 개설했다.

나의 수행일기



심 재 열
<원효사상 연구소장>

불교에 있어 수행이란 불타의 가르침인 깨달음을 향한 큰 마음을 생명의 근거로부터 일으켜 간절히 서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으로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3아승지겁의 일대역정 위에 '무한자비의 보살도로 장엄하는 것이어야 할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나의 불교 수행이란 것은 너무나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자책감을 느끼게도 한다. 6.25동란 당시 사춘기의 학생이었던 나는 서울 거리 여기저기에 군인, 시민의 시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서로 믿고 의지하던 이웃이 돌연 공산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잔인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실로 인생의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 피난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영양실조로 신음하며 쓰러져 가는 참상에 눈물을 적



전쟁 참상 보고 귀의…채식만 40년

셨고, 아침 저녁 동족살상의 뉴스 보도는 나를 울고 또 울게 했다.

이무렵 나는 이 모든 상처는 종교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절, 교회, 유교, 민족종교 등에 관심을 최대한 쏟았다. 어느날 식탁에 오른 생선을 보고는 "이것은 송장이다. 먹을 것이 아니다"하는 감상을 느껴 먹지 못한 이래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범어사로 동산스님을 친견하고는 불교에 귀의했다.

그 몇해 뒤 동산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고는 술, 담배, 육식, 5신채를 일거에 끊어 지금까지 40년동안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수행이랄 것은 없지만 신행에 의한 극기의 일단이긴 하고, '48경계'의 하나를 지니는 것이긴 하다.

정화불사이후로 신앙적으로는 청담스님을, 교화적으로는 이종익박사를 따랐는데, 청담스님 금강경 강좌를 3번 주관한 인연으로 그 어른이 입적하신 뒤 스님의 〈금강경 설법집〉을 간행하고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대작이 되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는 의욕은 수미산같이 컸다.

〈보조법어〉해설을 집필하고 있던 그 무렵의 어느날, 아내의 요청으로 강화 보문사로 기도를 떠났다. 아내는 자신의 문방구 처분을 발원했고 나는 청담스님 〈금강경설법집〉 간행을 기원했다. 아내는 1주일만에 어떤 현몽을 얻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3일후 기도중 꿈에 본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만족한 조건으로 분방구점을 인수해 줌으로 가피를 본 셈이었다. 그런데 나는 1주일을 더 정진했어도 아무 영험이 없어 전생업장이 두텁고 정성이 부족한 탓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도의 영험은 엄연하게 나타났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출판사 사장 꿈에 내가 나타나서 "내 사리를 부탁하오."하며 영롱한 사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사장은 그로부터 전과 달리 나의 제안을 들어주었고 도선사의 지원도 있어 큰스님의 〈금강경해설집〉을 비롯 7권의 불서를 간행 할 수 있었다.

19년전 〈육조단경〉본문만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다. 출판사측으로부터 해설을 급히 추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어느 재벌회장의 49재를 마치는 날 유족들의 발원으로 백일재에 〈육조단경〉을 간행 시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일이 급박했던 것이다.

기한내의 탈고를 위해 나는 밤을 새워 집필하는 날이 허다했다. 한 문단의 집필구상을 할 때

생활 속의 불교 ⑩

"추운 겨울 보내고 봄을 맞는 소식"

자기가 강도 짓을 하고 붙들려 갔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제가 했으므로 제가 치러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잘 되는 것,
안되는 것, 기쁘고 슬픈 일, 잘나고 못난 것,
우환과 행복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모두 제 말, 제 뜻, 제 행동으로 지은 결과이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빗대어 탄식할 것인가.
사람들은 인과 응보에 얽힌 업을
사랑심으로 풀려고 한다.
아니면 남의 탓, 운명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런 짓은 얼음 덩어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녹아내리는 듯이 보이지만 이내 부은 물까지 덧 얼어
얼음덩이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남의 탓을 하고 팔자 운명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캘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잠재 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업의 거미줄,
수억 겁을 두고 쌓여온 업의 뭉치들.
그것은 마음으로 지은 산물이니
마음으로 녹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한 생각 크게 돌이켜 나온 자리에
되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몰락 놓는 그곳에 업이 녹는 도리가 있다.
꽁꽁 언 얼음 덩어리가 봄 아지랑이에
스르르 풀어져 내리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맑은 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꼭지에서
시뻘건 녹물 · 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보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송수관이 녹슬거나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원PE 파이프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엔 동원PE 파이프가 적격입니다.

동원PE 파이프의 특성

위생성
무독 · 무취하므로 물맛의 변질이 절대로 없어 식수 · 온천수 배관에 최적이다.

내식성
부식 · 전식이 전혀 없어 관석이 생기지 않고 녹물의 염려가 없다. 바닷물 배관에도 적격이다.

내약품성
산 · 알칼리 · 염분에도 침식되지 않으며 해조류나 박테리아 등 세균류가 번식하지 못한다. 솔벤트 등에도 매우 강하다.

경제성
자재비가 저렴하고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이며 시공이 간편해 다른 자재보다 매우 경제적이다.

내한성
영하 80℃까지 물성변화가 없어 혹한기라도 동파의 염려가 전혀 없다.

유연성
신도가 500% 이상이므로 매설 후 지반변동이 심해도 파열 · 균열현상이 없고 따로 엘보 이음관을 쓸 필요가 없다.

기타
관 내면이 매끄러워 흐름이 좋고 융착이 완벽해 절단 이전 상태와 같은 이음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찰손실, 누수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동원PE 파이프의 용도

송배수관/급수관/소화전/LNG · LPG 등 가스배관/지중선 보호관/옥내 전선배관/해수인입배출관/농업용수관/간석지 배관/스프링쿨러 용/골프장 송수관/유류 · 화학약품 송수관/갱내 공기송출 닥트/토사 등 수송관/기타

폴리에틸렌 파이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DONGWON (株)東原프라스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0-1 서왕 9F, 3F
TEL. (02) 588 - 3476/8 - 4546/7 FAX. (02) 588 - 9470
공장 전북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391 - 1
TEL. (0653) 858 - 9335/6 FAX. (0653) 858 - 8337

교 차 로

범종불사 회향



정휴스님(불교신문사장, 해운사 주지)은 지난 4일 해운사 범종불사 회향 및 타종식을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자비와 행함이~' 송년법회



송묵스님(봉선사 포교국장)은 오는 21일 오전 12시 개운사 2층 법당에서 월운스님 및 대덕스님을 모시고 '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 회' 송년법회를 갖는다.

인성교육 강연 개최



송재운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회 서울 경기지회장)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민주평통자문회의(장충동) 회의실에서 동덕여대 조준하 교수의 "인성교육과 국민윤리" 인천대 정천구 교수의 "탈근대 사회와 윤리교육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했다.

예총문화예술상 수상

장동휘 안산불교회장(영화배우)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신영균)가 제정한 제 8회 예총문화예술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문예회관에서 있었다.

일본 구주미술관 시찰



황수영 박사(사진)·이기선씨(동국대 박물관연구원)는 지난 9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구주 미술관을 시찰하고 15일 귀국했다.

민자당 불교신도회 송년법회



곽정출의원(민자당 불교신도회장)은 지난 14일 신촌 봉원사에서 민자당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민자당 불교신도회 회원 50여명이 참석, 저물어 가는 94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했다.

교법사 포교대상 수상

김준형법사(교법사단장)는 지난 15일 대한불교신문사가 제정한 제 2회 포교대상에서 교법사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교법사로서 모자람이 많은 저에게 큰 상을 내린 것은 더 열심히 전법하라는 충고로 알고 청소년 불자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갑기념 논총 발간



김갑주부총장(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화갑기념 논총이 발간됐다.

이 논총에는 이현희교수의 「3·15 마산의거 연구」를 포함 모두 56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논총 봉정식은 지난 15일 경주 조선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시청자 운동' 세미나 참석

김재일회장(보리불교방송모니터회)은 21일 연세대학교에서 'CATV 시대의 시청자 권익을 생각한다' 세미나에 참석 '다채널시대의 시청자 운동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22일에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청자운동 활성화 심포지엄'에 참석, 94년의 시청자 방송비평 프로그램의 허와 실을 논한다.



◇ 월주스님 취임축하 다과회에서 축하 떡 자르기와 축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 강원룡목사, 월주 총무원장, 녹원 동국대 이사장, 설정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장 월주스님 취임축하 다과회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 취임법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의 참석하에 성료됐다.

이어 당일 오후 6시부터 타워호텔 젤코바흡에서 취임축하 다과회가 열렸다. 이자리에는 종교계 정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예술문화계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월주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 근일스님은 송년법회에서 법조불교인들이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법조불교인회 근일스님 초청 송년법회

법조불교인회(회장 김홍근)는 지난 12일 오후 6시 논현동 청호불교문화원 대강당에서 94년을 마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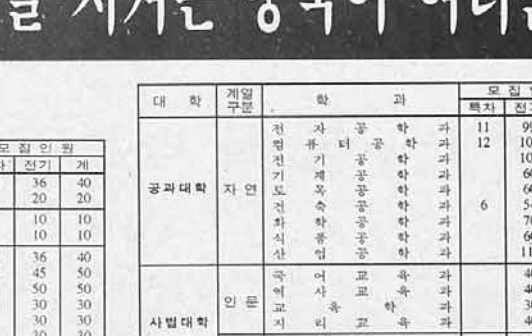
법조불교인회원 50여명이 함께한 이날 법회에서 지도법사 근일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을 주인공으로 삼아 항상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삶에 임하라."고 설하고 불교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대표선수 '한마음 불자회' 환영법회

불자 국가대표선수들의 모임인 '한마음 불자회' 소속 61명 선수들에 대한 환영법회가 지난 10, 11일 수덕사에서 개최됐다.

지도법사 경학스님의 안내로 수덕사를 찾은 한마음 불자회 소속 선수 전원에게 주지 법장스님이 순금메달과 「라훌라의 사모곡」(일당 스님 지음)을 전달하고 돈독한 불심과 불굴의 의지로 한국인의 기개를 드높인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환영법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전병관(역도 금메달) 여갑순(사격 단체 금) 이은철(사격 금) 등 금메달 선수 33명 은메달 7명 동메달 20명 등이다.



'불교텔리비전초청 불자연예인 송년법회

불교텔리비전초청 불자연예인 송년법회가 지난 14일 하오 6시 서울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월주스님, 태응스님, 우관수 부산경남후원회장 등 불교TV 이사진과 배삼룡, 장미화, 강부자, 임희춘, 진송남부부 등 불자 연예인 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내일을 여는 불자

이 석 기 <영문사 대표>



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끔 영문사를 찾아 오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다양한 불서를 구입, 제본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영문사가 단순한 논문 제본소가 아님을 강조한다.

요즘은 불교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팔리어 및 대만 북경관 서장대장경등을 제본 중인데 벌써부터 학생들(대학원생)의 관심이 크다고 한다.

불교학논문 제본하기 12년

희귀본 발굴·전문자료실 마련이 꿈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대부분 제본을 합니다. 밝은 웃음으로 찾아와 논문심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불교학 관련서적뿐만 아니라 희귀본등을 발굴, 제본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학기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논문을 제본하느라 하루종일 복사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석기씨는 12년전 동국대학 후문에 복사, 제본, 인쇄, 학위논문이라는 영문사 간판을 내걸고 10평 남짓한 복사실을 마련하면서부터 불교학과 학생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로부터 영문사는 10여년동안 많은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책으로 탄생시키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대 불교학 생산지라고 불리워질 정도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국대에 불교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 관련 서적이 충분치 않을뿐 아니라 가격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고 지적한 이씨는 "일본 및 외국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가끔 영문사를 찾아 오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다양한 불서를 구입, 제본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영문사가 단순한 논문 제본소가 아님을 강조한다.

요즘은 불교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팔리어 및 대만 북경관 서장대장경등을 제본 중인데 벌써부터 학생들(대학원생)의 관심이 크다고 한다.

불교학 인재양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교학 연구소 등의 관련 단체가 많이 있어서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논문이나 관련서적이 많이 나오면 후배들의 면학에 커다란 지침이 될 것"이라며 불교학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석기씨. 그는 영문사가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스스럽없이 한가족처럼 모여 필요한 전공분야의 관련서적을 볼 수 있도록 불교학 전문자료실로 발돋음 시키는 것이 자그마한 꿈이라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불교성전'을 읽고 감명을 받아 불법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석기씨는 이제는 주위 사람들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포교사이다.

불교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을 위해 이득에 관계없이 몸을 사리지 않는 이석기씨와 같은 불자를 보면서 밝은 불교의 내일을 엿볼 수 있었다. 〈김중근 기자〉

탐 방 소 도

민족얼·불교문화 연구 … 지역민에 풍물지도



◇ 풍물로 지역불교 저변화에 앞장서는 소도는 매일매일 민족불교문화연구와 풍물기량에 디지기에 여념이 없다.

"얼쑤 좋~다."

부산지역의 크고 작은 불교행사 때면 언제나 주민과 불자들의 흥을 돋우는 청년불자들의 모임 풍물패 '소도(회장 한정갑).'

대불련문화패 출신들에 의해 작년 7월에 창립된 소도(부산시 동구 수정1동 건약국 지하)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포교의욕을 풍물로 발산하고 있는 신행단체다.

우리의 의식주 어느 것 하나 불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소도는 그런 민족적 정기가 담긴 민족불교문화를 교학적으로 연구하고 풍물로서 부산 지역민에게 생활불교를 전하고 있다.

소도는 삼한시대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지다. 또 절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불교공동체로서 신구(新舊)문화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민족얼과 불교문화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소도'를 풍물패의 이름으로 정했다.

매주 토요일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법회를 여는 소도는 불교신앙문화의 양태를 토론하고 일상생활 속의 불교를 연구하는 노력 또한 각별하다. 그래서 소도의 이름 앞에는 민족불교문화연구원이라는 부가설명이 붙어 다닌다.

소도는 민족불교문화의 연구발표와 성지순례, 법문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펴 오고 있다. 또 장구, 꽹과리, 북 등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풍물지도도 하는 등 전통문화를 통한 불교 전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소도는 신행활동 외에도 불교문화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불교연극, 춤, 음악의 개발과 영호남 불교신앙을 비교한 슬라이드 제작상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풍물패가 그러하듯 소도 또한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무실 임대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힘들어 진 것.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정갑 회장은 "불자이기에 불법홍포에 나섰고, 젊기에 불교포교의 새로운 방법에 개척자로서 나섰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따위가 우리 청년불자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욱 똘똘 뭉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소도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수정1동 지하방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들의 신명나는 풍물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

〈부산= 도필선기자〉

게시판

▲졸업작품발표회=승가대 보육교사 교육원(원장 홍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경진관 대강당에서 졸업작품발표회 및 교구전시회를 갖는다. (02)921-9721

▲동계수련대회 개최=구미 고등부 불교학생회는 12월 24일~27일까지 2박3일간 용인 관음사에서 동계 수련대회를 실시한다. (0546)455-1068

▲봉화산 한문서당 개원=경남 김해군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은 지리산 청학서당에서 훈장을 초청, 겨울방학 동안 한문서당을 개원한다. 1차교육은 오는 25일부터 22일간, 2차교육은 새해 1월20일부터 22일간 실시하며, 숙식·교재비는 18만원. (0525)42-2941

▲12월 다보법회=불교문화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12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하는 이번 법회의 법사는 전 총무원장 성수스님.

▲일일찻집=조계사 중고학생회는 오는 25일 오전10시 산중다원에서 청소년 활동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연다.

1995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지성 한세기를 지켜온 동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 주요 사항

·특 차 모 집
- 원서교부 : '94. 12. 20(화)-12. 27(화)
- 원서접수 : '94. 12. 26(월)-12. 27(화)
- 면접고사 : '94. 12. 29(목) 10:00-
- 지원자격 : 수능 성적 동일계 상위 6%이내(단, 한의예, 의예과는 2%이내)

전 기 모 집
- 원서교부 : '94. 12. 20(화)-'95. 1. 4(수)
- 원서접수 : '95. 1. 2(월)-1. 4 (수) 마감
- 본고사 및 면접고사 : '95. 1. 9 (월)

※ 서울캠퍼스 예능계 면접일은 '95. 1. 8(일)

지 원 방 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동일계열 학과에 한함.
  (예 · 체능계 학과는 수능시험 응시계열에 구분없이 교차지원 가능함)

대학본고사
- 과목 : 논술 1과목 · 대상 : 서울캠퍼스 인문 · 자연계 전학과
  (서울캠퍼스 아간학과, 예체능계학과 및 경주캠퍼스 전학과는 논술고사 없음)
- 출제유형 : 단독과제형 1문항(인문 · 자연계 분리출제) 60분 600자 내외
- 배점 : 100점(총점의 10%)

원서교부처

서울 및 경주캠퍼스 / 교보문고 / 종로서적 / 한가람문고 / 동화서적 / 서울문고 / 영풍문고 / 을지서적 / 세종문고 / 교민문고 / 신촌문고 / 영등포문고 / 원서문화센터 / 조흥은행(부산, 대구, 마산,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진주, 강릉, 춘천, 제주, 부평) / 국민은행(수원, 인천, 강릉, 대전, 청주, 전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 한일은행(수원, 인천, 제주, 광주, 전주, 진주, 부산, 포항, 대구, 대전, 청주, 춘천, 신사동 영업1부) / 부신동보서적 / 대구학우서점 / 대구종로서적 / 물신동학서점 / 포항로고서점 / 진주강남서점 / 김천서점 / 안동종로서적 / 제주서귀포광장서점 / 마산학원사서점 / 청주일신문고 / 대전대흥서적 / 목포국제서림 / 광주삼복서점 / 진주홍지서림 / 강릉단골서점 / 춘천청구서림

◆ 모집학과 및 인원

• 서울 캠퍼스

대학	계열구분	학과	모집인원 특차	전기	계
불교대학	인문	불교학과	4	36	40
		인도철학과		20	20
		선학과 승·입		10	10
				10	10
문과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4	36	40
		영어영문학과	5	45	50
		영어영문학과(야)		50	50
		독어독문학과		30	30
		불어불문학과		30	30
		사학과		30	30
		국민윤리학과		30	30
		중어중문학과(야)		50	50
이과대학	자연	수학과		40	40
		물리학과		50	50
		화학과		50	50
		통계학과		40	40
		반도체과학과(야)		40	40
		전산물리학군(야)		100	100
법과대학	인문	법학과	8	72	80
사회과학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40	40
		행정학과		40	40
		경찰행정학과	4	36	40
		사회학과		40	40
		국한학과(야)		40	40
		신문방송학과(야)		50	50
경상대학	인문	경제학과	5	45	50
		경제학과(야)		40	40
		무역학과		55	55
		무역학과(야)		55	55
		경영학과		80	80
		경영학과(야)		55	55
		회계학과		60	60
		회계학과(야)		55	55
		정보관리학과	4	36	40
		정보관리학과(야)		30	30
		장고학과(야)		50	50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	식물자원학과		30	30
		산림자원학과		30	30
		응용생물학과		30	30
	인문	생명자원경제학과		30	30
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11	99	110
		컴퓨터공학과	12	108	120
		전기공학과		100	100
		기계공학과		60	60
		토목공학과		60	60
		건축공학과	6	54	60
		화학공학과		70	70
		식품공학과		60	60
		산업공학과		110	110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40	40
		영어교육과		40	40
		교육학과		30	30
		지리교육과		40	40
	자연	수학교육과		30	30
		가정교육과		30	30
	예·체능	체육교육과		40	40
예술대학	예·체능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12	12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13	13
		미술학과 조소전공		12	12
		미술학과 불교고미술전공		13	13
		연극영화학과 이론·연출		20	20
		연극영화학과 연기·기술		20	20
서울 캠퍼스 합계			63	2,787	2,850

• 경주 캠퍼스

대학	계열구분	학과	모집인원 특차	전기	계
불교문화대학	인문	불교학과		40	40
		불교학동학과		50	50
	예·체능	국악과 기악전공		25	25
		국악과 성악전공		10	10
		국악과 이론·작곡전공		5	5
		국악과 전통무용전공		10	10
인문과학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0	60
		영어영문학과		70	70
		일어일문학과		50	50
		중어중문학과		40	40
		한문학과		40	40
		국사학과		50	50
		고고미술사학과		40	40
		철학과		40	40
		사회복지학과		40	40
인문과학대학	예·체능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12	12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13	13
		미술학과 조소전공		12	12
		미술학과 불교고미술전공		13	13
		사회체육학과		40	40
자연과학대학	자연	생물학과		50	50
		화학과		50	50
		생천화학과		30	30
		천산물계학과		40	40
		조경학과		50	50
		전자계산학과		50	50
		전자계산학과(야)		40	40
		산업안전공학과		40	40
		수학교육과		40	40
		가정교육과		40	40
법정대학	인문	법학과		60	60
		법학과(야)		40	40
		행정학과		60	60
		국제관계학과		40	40
상경대학	인문	경제학과		80	80
		국제경제학과		75	75
		경영학과		80	80
		경영학과(야)		50	50
		회계학과		75	75
		관광경영학과		50	50
		관광경영학과(야)		50	50
		정보산업학과		40	40
		정보산업학과(야)		30	30
한의과대학	자연	한의예과	8	72	80
의과대학	자연	의예과	5	45	50
경주 캠퍼스 합계			13	1,937	1,950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서울 캠퍼스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 (02)260-3114(대), (02)260-3031~4(교), FAX : (02)260-3696

· 경주 캠퍼스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0561)770-2114(대), (0561)770-2031~4(교), FAX : (0561)770-2006



삽화 · 이기선

오늘의 재해는 병든 역사의 업보

위정자도 백성도 세월을 바로 보아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⑨

재해 <劫濁 · 겁탁>

12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겨우살이를 하느라고 온갖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또 한번 크게 놀랐다.

마포 아현동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건이 난 것이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위적 사고다. 인재의 액난이다.

이렇게 되어도 된다는건가. 사건의 연발이다. 악연이 한 통속이 되어 천지사방에 악업이 자행되지 않는 곳이 없다.

온통 겁화(劫火)가 함께 휘몰아치고 불운이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매몰차게 안겨 주고 있다.

지금은 오탁악세(五濁惡世)인가. 오탁에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 있다. 겁탁이란 무엇인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기근, 전쟁으로 인한 시간, 수명장단의 재해를 의미한다. 전쟁, 재난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겁탁이란 역사적 재해가 아닌가.역사적 재해란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 역사인식을 흐리게 하여 아전인수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운용하면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른뒤에 그 책임성을 추궁받게 되는것이다.

안녕을 보장하라

역사는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중생이 아무런 장애나 핍박을 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처자의 입장에 선 사람만이 호의호식하고 모든 백성을 종부리듯 혹사하고 가렴하였다면 그 역사는 진리에 빗겨간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생명이 깃들어있어야 하고 생명은 안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백성들의 시간이요 세월이다. 세월이 어떠하냐고 물어올때 그 세월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세월속에는 백성의 삶, 아니 삶의 안부를 되물고 있는것이다.

세월은 무상한 과거를 의미하지 않고 그 새월속에 무상한 백성들이 무엇을 담아보려고 한 문화전반을 말한다. 백성으로부터 문화가 창의되려면 위정자가 성군이어야 한다. 착취와 학정이 연속되었다면 그 역사에 살았던 백성들은 기근과 압박에 시달려 굶주리고 뼈아픈 질곡에서 허무히 세월을 보냈을것이다.

우리는 세월을 바르게 이용하는 민주적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답다'라는 말은 여여(如如)를 의미한다. 모든 자연이 자연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면 여래(如來)의 의미도 여겁(如劫)의 의미와 괴리하게 된다. 율때와 갈때가 똑같이 하나여야 한다. 한 역사속에 치자와 피치자가 하나의 마음에서 성숙되어야 한다. 치자가 누리는 역사는 광대부변하고 피치자가 치자하는 역사는 주마일 뿐이라면 여(如)의 의미가 죽고 만다. 여(如)는 역사와 세월속에 가만히 있는 적멸위락이다.

우리들은 이 적멸위락의 세월을 버리고 살고 있다. 역사는 함부로 창조하려고 한다. 역사를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의 관계에서 부딪침없는 안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겁탁이란 역사가 병든 것이다.

선대 역사가 병든것이라면 명약한 것은 후대의 세월이 무참하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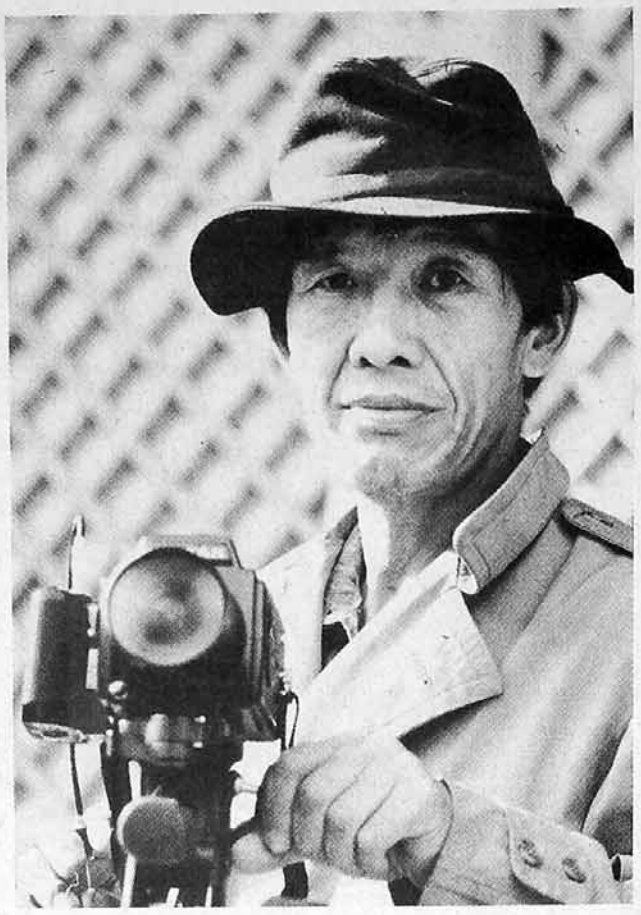
청정한 역사를 만들자

역사를 맑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역사를 부정한 것으로 움직여 온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불의를 살림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덕하고 불의한 일군의 정상배가 그 세월속에 을풍농월하면서 허장성세를 구가하였다면 끝장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허장성세처럼 부끄럽고 가소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빈 양철이다. 소리만 요란하지 어디 담겨 있는 실물이 있느냐. 우린 왜 빈양철을 귀따갑게 두들기며 양반 노름만 하고 있었던가. 겁(劫)을 볼 줄 아는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어야한다. 아니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겁을 감시하는 자제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겁은 역사이고 세월이다. 겁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겁탁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된다. 역사는 대하와 같다. 한번 밀려오는 큰 물살은 방파제로 막을 수 없다. 흐리고 악하고 흉물스런 역사라면 사람도 흐리고 악에 물들고, 흉악범으로 변화인이 되고 만다. 우리가 지금 온통 삼재팔란을 겪고 있는 것은 겁화의 악귀에 놀아나는 업보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청정케 하는 깨친이가 나와야 한다. 아현동 주민이 가스가 새어나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을 쳐도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다' 고. 이무슨 가스에 물든 독귀신의 변명인가, 당장 가스관을 막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아뿔사 함몰안 폭발은 서울을 놀라게 하였다. 겁탁의 불길을 방관으로 끌수 있을까.

"셔터 누르는 찰라엔 나도 선객"

산문밖의 전령 사진작가 조문호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휩싸여 가는 도시를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 낡은 배낭에 오랫동안 길들여 온 카메라며 필름통 옷가지를 챙겨 넣고 금속성 장비들을 단단히 점검한 다음 다시 지도를 펼쳐보는 조문호씨. 그는 사진찍는 사람이다.

사진계에서는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영역을 넓혀 온 그이지만 출사를 나갈 때는 언제나 신인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올 겨울 그는 양상한 숲 속에서 만날 사찰들과 하얗게 눈덮힌 문화재들을 생각하며 또 한차례의 여행을 하려는 것이다. 그의 여행은 외롭다. 수행자처럼 그는 외로운 여행길을 묵묵히 떠나는 것이다.

"입문한 이후 10여년간 줄곧 사회다큐멘터리에 열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렌즈에 담아 내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10년이란 시간을 통해 저는 인간의 삶이 갖는 아름다움과 슬픔을 실컷 맛봤습니다."

사진은 정직한 예술이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찍고 찍혀진 대로의 작품이 인화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진예술인 것이다. 그의 10년에 걸친 작업은 우리 사회의 '있는 사실'들을 담아내는 것 자체였다. 그 속에서 그는 인간삶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 작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90년 이후이다. 그는 더이상 생활의 언저리를 찾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탐구하는 주제를 바꿔 버린 것이다.

4년간 그는 사찰을 다니며 사찰에 깃든 멋과 가르침을 찍어 오고 있다.

우리 것에 대한 타고난 애착심과 이제 나만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10년 작업을 괭개치게 했다고 말한다.

"처음 사진을 찍게 된 것은 최민식씨(원로사진작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회 다큐의 1인자로 꼽히고 있는 분이죠. 제가 부산 남포동에서 한마당이란 주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그분의 작품집〈인간고〉를 얻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원래 국문학과 출신인 그는 작은 주점 주인이었다. 그런 그가 우연히 얻어 본 최민식씨의 사진집은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점을 경영하며 사진을 찍게 됐고 점점 사진에 빠져들면서 주점도 문을 닫게 됐다. 생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타고난 재주와 감각이 그에게는 가능성으로 늘 남아 있었기에 식솔을 거느리고 상경까지 하게 됐다. "서울 생활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몇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거치면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은 됐다는 것이 돌이켜 보면 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뜻 부처님 가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가톨릭 신도였다. 86아시안게임전, '87동아미술제 초대전, 89전농동 588번지 사진전을 할때까지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대표하는 사창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전을 가진 이후 그는 불교와 사찰과 문화재란 주제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회시켰다.

그리고 그는 불교에 귀의했다. 사진찍는 사람은 기계조작 보다는 대상물에 대한 연구와 탐닉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불교공부를 하다가 아예 귀의 했다는 것이다. 통도사 축서암의 수안스님 앞에서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던지고 진공(眞空)이란 법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조씨. 그는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은 선객이 된다고 말한다.

불교사진에 매료, 세례명 던지고 귀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고요, 그 찰라 속의 영감들이 저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어떤때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단번에 전율을 맛보기도 합니다."그러니까 그가 찾아가는 산사는 그의 수행처이고 그곳에서의 작품활동은 수행의 과정인 셈이다.

"대상물을 정하고 카메라를 통해 그 대상물을 들여다 보는 순간의 긴장감과 셔터를 누르기 직전의 순간의 고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찰라 속의 영감, 이 모든것들이 저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때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단번에 전율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런때는 반드시 괜찮은 작품이 나와요. 물론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찾아가는 산사는 그의 수행처이고 그곳에서의 작품활동은 수행의 과정인 셈이다.

"언젠가 석굴암으로 촬영을 갔었습니다. 관광객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으려고 석굴암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마침 예불 시간이 되더군요.

어느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천년신비의 미소를 찍으려는데 저는 사진을 찍기보다는 무수히 절을 했습니다. 그 고요한 본존불의 미소와 스님의 독경소리가 마치 어느 영산회상의 한 가운데 제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줬던 것입니다. 예불이 끝난 뒤에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대상물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다가 신앙심마저 흠뻑 물든 상태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술의 혼을 일깨우는 경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화엄사 각황전의 새벽 분위기를 찍으며 법당을 가득채우는 새소리들에 매료되어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셔터를 눌렀던 기억도 되살리며 "불교에 귀의 한 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올 겨울 그는 또 우리의 산하를 떠다닐 계획이다. 깊은 산골을 헤메다 만나는 산사에서 스스로 선객이 되어 셔터를 누르고 넘은 들을 쏘다니다만나는 고즐한 탑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수행의 열락을 느낄 것이다.

— 가장 찍고 싶은 사진은 어떤겁니까.

▲ 내 마음을 찍는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성도절 봉축 성지순례

● **순례기간**:1995년 1월 4일 ~ 1월 18일(14박 15일)
● **동 참 금**:178만원
● **일 정 표**

일 자	방 문 지	일 정
제1일	서울 / 봄베이	서울 출발 / 봄베이 도착
제2일	봄베이 / 바라나시	인도문, 웨일즈박물관 등 봄베이 관광후 바라나시로 이동
제3일	바라나시	갠지스강 일출 감상 후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순례
제4일	바라나시 / 보드가야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로 이동, 금강보좌 순례
제5일	보드가야	성도절 봉축 법회 참석-보리수, 니련선하, 마하보디사원 순례
제6일	보드가야 / 라지기르 / 파트나	보드가야 출발, 영취산, 죽림정사, 나란다불교대학터 순례
제7일	파트나 / 바이샬리 / 쿠시나가르	바이샬리 방문후,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의 열반당 순례
제8일	쿠시나가르 / 룸비니 / 발람푸르	네팔입국,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방문 후 인도 재입국
제9일	발람푸르 / 럭나우 / 델리	발람푸르 출발, 기원정사와 사위성 순례후 럭나우 경유 델리 도착
제10일	델리	쿱타미나르, 인도문 랄 킬라등 델리 관광
제11일	델리 / 아그라	아그라로 이동, 아그라성, 인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 방문
제12일	아그라 / 산치 / 보팔	산치로 이동, 산치 대탑 방문 후 브팔 출발
제13일	부사발 / 엘로라 / 아잔타	부사발 도착 후 엘로라, 아잔타 석굴사원 방문
제14일	오랑가바드 / 봄베이	오랑가바드 출발 / 봄베이 도착 후 봄베이 시내 관광
제15일	봄베이	봄베이 출발 / 서울 도착 * 성불하십시오 *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 여행조건
· 1급 호텔(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 제공(성지 지역은 한식 제공)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전문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직원모집
경리 1명(女) 관리 1명(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6번지 ☎(02)720-9372 · 3 Fax(02)723-0646

불자님께 드림

광명보시 인간방생하는 광명회를 펴며...

구세대비(救世大悲) 원력(願力)은 인류 생존에 불생불멸의 발보리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 살겠다는 원력 없이는 스스로 대도(大道)를 잃고 자신의 파괴를 자초하므로 병마의 시달림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화식 연료의 과잉 사용과 태양계 오존층의 변화로 환경오염이 위험 수준에 도달, 눈병 환자 · 눈 잃은 자가 많아짐은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불자가 광명보시 인간방생을 위해 나서야 함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번 광명회는 불자들의 뜻을 모아
눈 잃은 자는 개안수술로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먼 자는 각막 이식 수술로 광명보시 인간방생을 베풀며,
각막 · 수정체 기증을 받는 '새 생명 공양 대원력 사업'을 세워
불교교단 봉사단체를 결속하는 운동을 펴려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며
걸국 한 주먹의 흙이 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사회를 위해
어떤 대 원력을 펴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밝은 눈 얻는 개안수술 · 각막 이식수술과, 실명자를 위한
사후 눈 각막기증 및 생전에 신장 부전증으로 고통 받는 자를 위해
콩팥을 기증하는 광명보시 인간방생.
이 대원력을 실천하려는 모든 불자들의 헌신적 협조와
동참을 비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 청교연 진주지부 부설
먼 눈 밝히는 광명회
총재 전관응 큰스님
회장 박현상 스 님
김기원 교 수

•사무실-경남 진주시 강남동 1-14 Tel (0591)751-3384, 758-6611, Fax 758-6611

향토사학자 내고장 역사 밝히기 활발

묻힌 사료 유적 유물 발굴의 '밝은 눈'

문화단체 · 동호회등과 공동 연구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신라, 백제, 가야, 충원문화권 등 문화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과 동호회, 향토사학자들의 활동현황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의 10대 유적지로 선정될 만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 부근 신라문화권의 향토사 연구현황을 먼저 알아보면, 지방 향토사 연구가로 유명한 윤경렬씨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 고문이기도 한 윤씨는 〈경주남산 고적순례〉, 〈신라이야기〉, 〈신라의 아름다움〉, 〈경주남산〉등의 저서를 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경주에는 경주 문화발전과 81체의 불상과 61기의 석탑, 115곳의 절터가 있는 경주 남산 보존을 위해 애쓰는 신라문화동인회(회장 김태종)나 부처마을(촌장 도문), '삼국유사 절터 찾기모임(회장 고복우)' 등과 같은 애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별로 없고 거의 직장인들이라 전문적 연구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자기 고장의 뿌리를 밝히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같은 지방 문화단체와 향토사학자들은 향토사 연구 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제문화권인 충남의 경우 지난 64년에 발족한 백제사적연구회를 비롯, 천안향토문화연구회, 당진향토문화연구회,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등 거의 군 단위로 향토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해 89년에는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들 향토사학회는 〈향토연구〉, 〈백제산책〉, 〈웅진문화〉, 〈백제사학〉 등의 연구지를 펴내고 있다.

최근 부산 · 김해 · 함안 · 양산 · 합천 등 가야문화권에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해 대성동, 양동리의 발굴조사로 인해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은 허구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입증된 것은 가야권 향토사학자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영택(부산교육원 교육연구사)씨가 수년간의 답사끝에 찾아낸 벌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개가로 꼽히고 있다.

가야권인 영남지방에는 경남 24원(院), 대구 · 경북에 30원의 문화원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책정한 충북, 경기도 이천군, 강원도 원주 · 영월군, 경북 문경 · 영주 · 봉화 · 안동 · 상주군등을 포함하는 충원문화권에도 다양한 연구회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주의 예성동호회, 옥천의 관성동호회, 제천의 내제문화연구회, 진천의 상산고적회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중 예성동호회는 79년 봄에 중원고구려비(국보 205호)를 발견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예성동호회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 확인한 것만 해도 음성군 소이면의 미타사 마애불 발견(1978), 중원군 가금면의 봉황리 마애불상군 발견(1978), 중원군 신니면의 숭선사지 확인(1981), 단양군 영춘면의 비마라사지 발견(1982) 등이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의 전통과 역사를 밝히고 문화재를 보호해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또 향토사학자들은 지방에 산재한 사료와 구전을 수집하고 연구 보전하므로 정통사학과는 다소 어긋나는 주장을 제기, 연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향토사학자로는 경주의 윤경렬, 김해의 이병태, 공주의 윤여현, 충주의 김현길, 춘천의 원영환, 대구의 김택규, 광주의 김정호, 청주의 박상일, 부산의 주영택씨 등이 꼽히고 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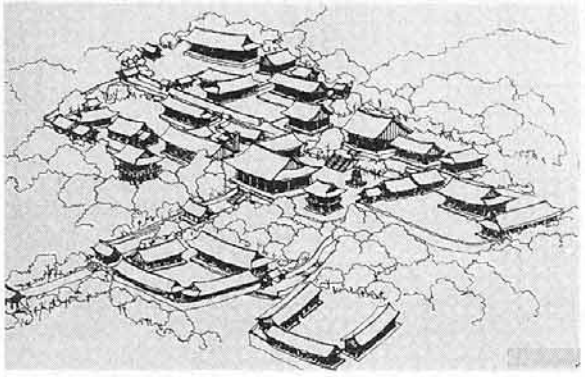
「한산사지」 복원 호소

삼척 향토사학계

삼척군 도계읍 흥전리 석공도계광업소 흥전갱 뒷산에서 3백여년간 방치돼 온 「한산사지」를 보존 ·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향토사학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63년 발간된 〈진주지〉 등에 따르면 고려때 창건된 한산사는 조선중엽인 1636년 산불로 소실됐으나 현재까지 빌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한 차례도 중건되지 않고 방치돼 왔다.

그러나 산중덕을 평평하게 절토해 낸 한산사지는 4천5백여평 규모여서 현지를 확인한 향토사학가들로부터 복원등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범어사의 본래 규모를 알 수 있는 표지돌이 향토사학가에 의해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범어사 전경 스케치.

범어사 본래규모 밝혀냈다

향토사가 주영택씨 고려때 세운 석표 발견

향트사학자 주영택씨(부산교육원 교육연구사 · 57)가 수년간의 답사끝에 범어사의 토지경계를 나타내는 3기의 석표(石表)를 발견해 범어사의 정확한 사찰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견된 석표의 위치는 현재 범어사에 소장돼 있는 「선할대본산 범어사 전경도」에 나타나고 있는 각 방위의 경계와도 일치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범어사 전경도의 각 방위별 경계는 서쪽은 고당봉, 남쪽은 원효봉 아래, 북쪽은 계명봉, 동쪽은 금정중학교 옆산으로 표시돼 있다.

사찰의 석표는 고려시대 호부(戶部)에서 세금징수를 위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에 세운 표짓돌이다. 당시 전국 각 사찰에서 석표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도사에서도 고려 선종 2년(1085)에 호부의 명을 받아 12군데의 석표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 양산군 하북면에 있는 국장생 석표는 보물 제74호로 지정돼 있다. 범어사에서 발견된 석표는 고당봉과 원효봉 근처에서 3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로써 범어사의 경계를 실증할 수 있게 했다.

주씨는 3개의 석표이외에도 「범어사 측량실측 도첨서」를 새로 발견해 범어사의 규모를 현대적인 치수로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한 측량사가 1905년에 기록한 이 도첨서에는 산림면적이 1백45만9천8백46평, 본사경내가 4천9백52평 등 범어사의 총면적이 1백49만3천1백42평으로 나타나 있다.

'신라왕경연구' 학술발표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지난 9, 10일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 선재미술관에서 '신라왕경연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서는 효성여대 최광식교수의 「신라 왕경(王京)의 보존과정」등 모두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산중法食을 가정 식단으로"

선재스님 「사찰 음식문화 연구」서 주장



◇선재스님

부처님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이 시대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교음식연구회 선재스님은 지난 12일 광명선원에서 스님의 중앙승가대 졸업논문인 「불교복지증진을 위한 사찰 음식문화 연구」를 주제로 전통사찰 음식 강연회를 열었다.

선재스님은 "간혹 스님들 중에 심장병, 당뇨병, 암 등 성인병이 있음을 보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수행을 잘했던 부처님 당시 승려의 식생활과 과거 우리 스님들이 섭생했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먹는 법등은 수행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잘것 없는 하나의 발우(鉢盂)도 법답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한 부처님 당시의 식생활 문화와 우리나라 음식문화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찰음식문화는 이 시대에 교육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

선재스님은 "인스턴트식품 안먹기와 인공조미료를 먹지 않는 작은 실천이 사찰과 현대인들의 주방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무공해 채소와 자연식품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저장식품공장, 채식식당 운영과 사찰음식문화 강좌 등을 실행해 사찰음식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였는데 내가 되었다"의 뜻은

문 옛 선사가 이르시기를 "처음에 나였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처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어떤 뜻인지요?

(서울 양천구 목동 · 박창한)

답 나중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부처입니다. 그대로 부처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를 구해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하니까 그대로 부처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부처 아닌 부처, 자유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고 있다가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를 보는 주체가 있습니까

문 한 해설서를 보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언급하기를 "경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경지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 최도성)

답 물 맛을 알려면 직접 먹어보아야 압니다.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찬 것인지 먹어본 사람이나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이상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만 해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헛되게 됩니다. 먹어보지 않고 물 맛이 어떻더라 하고 말한다면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물을 마셔보고 '야 이 물 참 시원하다' 할 때 그 물 한 바가지가 약사보살의 감로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로 나일 때 내가 물이되고 물 맛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주인공에 놓는게 잘 안돼요

문 어린 자식들 데리고 남편없이 살려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스님께서 주인공에 일체를 놓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놓아도 일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주교민)

답 일체를 맡겨 놓고 죽어도 좋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놓는다고 하면서 살려고 놓으니까 결과를 탓하게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려고 주인공에 다 놓으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했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믿듯 철석같이 믿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렇게 하던 사는 길이 생기겠지 하며 살자고 놓으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눈 뜨고 삼년을 푹 쉬어라, 자거라 하였습니다.

나무를 베도 살생이 되는지

문 어떤 공사를 하느라고 나무를 여러그루 베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어내면서 이것도 살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도리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릉시 죽헌동 · 이종환)

답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나무들이나 다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원수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이 되겠지요. 남의 것 돈 안내고 가져오면 도둑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관하라 하고 일러주는 것은 그럴 경우 쉽게 말해 공동분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기 얘기하는 주인공이란 개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리이기에 누가 살생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 공동분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인공 자리에 놓고 베면 나무의 무명이 벗겨집니다. 나무는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생명의 근본은 주인공에 넣으면 그냥 한 찰나에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천만개의 영령이 들어간다해도들어간다해도 나 하나가 공(空)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입니다. 그러니까 넣은 사이도 없죠. 두드러지지도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법이구요. 고로 살생이 되는게 아니라 바로 무명을 벗겨주는 일이됩니다.

병원에서 마취를 하면 손가락을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듯이 주인공(空) 자리에 맡기고 벤다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무의 모습을 벗고 한 찰나에 사람으로 화하게 됩니다.

나무도 몇 백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과 접한 그런 나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모든 생명은 똑같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벗겨주는 게 원칙이죠. 또 소는 소대로 고기는 약으로 쓰고 무명을 벗겨주니 그렇게 한다면 에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고 받았으니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상점에 물건 사러 가서 돈 주고 물건 가져왔는데 도둑으로 몰릴 까닭이 있을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쯤 되겠지요.

그것이 빈 틈 없는 질서요 삶의 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도리를 모르면 나무를 베는 것도 분명한 살생이 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 · 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 · 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14,21,28 1/4,11,18,25
·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15,22,29 1/5,12,19,26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 울 여 행 특 선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日 ₩ 685,000	12月 17,18,24,25,28,29,30,31日 1月 7,8,14,15,21,22,28,29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12月 19,16,23,30日 1月 6,13,20,27日
대만(화련) 4日 ₩ 535,000	12月 18,21,25,30日 1月 1,4,8,11,15,18,22,25,29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12月 22日 1月 5,19日
마 닐 라 4日 ₩ 625,000	12月 17,24,31日 1月 7,14,21,28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12月 25日 1月 8,29日
홍콩 · 마카오 4日 ₩ 545,000	12月 16,23,30日 1月 6,13,20,27日	유럽 5개국 10日 ₩ 1,940,000	12月 22,29日 1月 5,12,19,26日
동남아 3국 5日 ₩ 699,000	12月 17,21,24,28,31日 1月 4,7,11,14,18,21,25,28日	유럽 6개국 11日 ₩ 2,140,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홍콩/마카오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2,140,000	12月 17,24,31日 1月 7,14,21,28日
방콕 · 싱가폴 6日 ₩ 795,000	12月 20,22,27,29日 1月 3,5,10,12,17,19,24,28,31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12月 22,29日 1月 5,12,19,26日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12月 22,29日 1月 5,12,19,26日	사 이 판 4日 ₩ 645,000	12月 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12月 20,27日 1月 3,10,17,24日	괌 4日 ₩ 645,000	12月 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본(츠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12月 20,27日 1月 3,10,17,24,31日	시드니 · 골드코스트 5日 ₩ 985,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하 와 이 5日 ₩ 749,000	12月 17,21,22,24,28,29,31日 1月 4,5,7,11,12,14,18,19,21,25日	호주 · 뉴질랜드 8日 ₩ 1,545,000	12月 17,18,20,22,24,25,27,29,31 1月 1,3,5,7,8,10,12,14,15,17,19日

※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수요 인터뷰

"남을 인정할 때 사회병 치료돼"

각종재난 메마른 국민정서 탓
종단초월 전법해야 불교중흥



서봉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보살도 실천의 방편인지 모릅니다만 태고종은 얼마전에 성수대교 참사자를 위한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천혼국재를 봉행하였고, 지난 9월에도 전통불교문화 계승을 위한 8관대재를 재현하는 등 사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이점에 대해 귀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위기, 화합절실

▲종교의 생명은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앞서갈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상하게 근년들어 우리나라에 재난이 많습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할까요. 아무튼 불안하고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전투적이고 악랄한 국민정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8관대재와 천혼국재란 행사를 통해 국민정서 순화운동에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승려들이나 불제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이지요. 혼란은 곧 서구문명의 지나친 팽배 혹은 그에 대한 맹종이 원인이라 봅니다만 이유는 여하튼 치료가 급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은 국민정서를 순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태고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종단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태고종의 승려들은 정화의 분규로 조계종에서 쫓겨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조계종과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태고종을 창종한 1세대들은 몇몇분 외에 모두 열반했고, 지금은 2세 내지 3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젊고 패기가 있으며 추진력이 강합니다만 창종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종심이나 응집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종단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덧붙여 태고종과 조계종의 분규는 현상태에서 멈추고 양 종단이 모두 전법교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파보다 보살도 실현을

—불교의 미래는 인재교육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4년제 각종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휴재산을 활용하고 장학후원회도 조직하려 합니다.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자 전원을 선암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선암사에 4년과정의 전통강원과 선원을 세워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어가 필수이므로 영어를 비롯 2~3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시설도 완벽하게 설치하려 합니다.

—태고종의 종지나 종풍은 무엇이며, 그것을 현대화, 대중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고종의 역사를 살펴보면 태고보우스님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선종이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선교를 겸수하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과 이념을 실천하는 교종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한국불교의 전통이 통불교라는 점에서 종파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보살도의 완성이 중요하겠지요. 이를 위해 인적·물적·제도적·교육적 방법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혼들림 없는 신심

—금년 세납(나이)이 78세이신데 출가하신 시기와 동기는 무엇이셨는지요.

▲국민학교를 3월에 졸업하고, 그해 6월에 입산했습니다. 벌써 65년 되었나 봅니다. 출가 동기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당시 저의 부친께서 용인 극락사의 승려였어요. 어린 저를 그때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스님 문하에 입적시켰는데 당신의 길을 따라 출가한 것이지요. 그 후 용주사 강원에서 사미·사집·사교·대교(화엄현담)까지 공부했어요. 그 중간에 잠시 금강산 장안사에서 법패를 배웠지요. 용주사 강원을 마치고는 철원에 있는 심원사 강원에서 화엄경 삼현(三玄)을 공부했습니다. 도반으로 우리 종단의 종정이셨던 안덕암스님, 현 조계종 종정이신 윤월하스님이 계셨습니다. 이후 43년도에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비구·대처의 분규가 있기 전까지 용주사에서 3직을 맡아 보았습니다. 그후 일본 소재의 금강사 주지를 2년여 맡은 것 이외에는 태고종 중흥을 위한 현장에 있었지요. 85년부터 현재까지 신촌 봉원사 조실로 있으며, 부처님께 바치는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태고종 발전을 위해 행정수반을 맡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국내외 정세가 어려웠던 만큼 불교 내부도 매우 다사다난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흔들림없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늘 겸손하고 남을 생각하며 중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회향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대한 발심은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삶은 가꾸기에 따라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은 「내가가는 금강경」



깨달음으로 가는 선의 향기

"금강경 이해를 위한 문자 행위들이 도리어 금강경의 본분을 다 죽여 버린 것은 아니던가. 이런 격렬한 질문과 함께 나는 금강경의 세계에 들어간다." (본문 중에서)

신국판 / 352쪽 / 값 5,500원



공종원 「이땅의 쇠북소리」



통렬한 불교개혁의 외침

개혁시대의 한국 불교. 격려와 질책 속에 숨가쁘게 진행되는 개혁의 대장정.
이 시대 우리 불교를 걱정하는 불자들과 참된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큰 울림을 준다.

신국판 / 400쪽 / 값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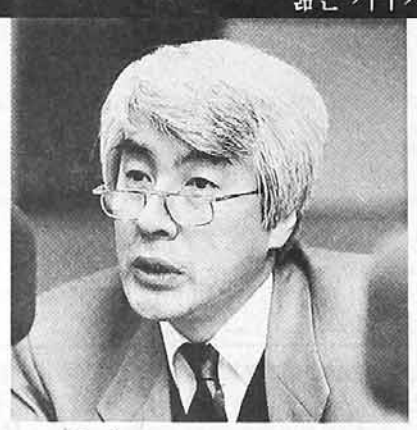
김정빈 「깨달음의 향기」



아름다운 부처님의 발자취

이상은 우리의 벌이다. 그것은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못내 사랑하고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붓다는 가장 완벽하게 현실을 이상화 하신 분이다. 감수성 예민한 작가의 눈으로 본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신국판 / 352쪽 / 값 5,000원



정병조 「정병조 불교입문」



불교입문의 정통 개론서

부처님 사상의 모태인 인도의 자연과 종교에서부터 부처님의 출현과 생애, 가르침 그리고 교단형성과 경전 해설까지.
인기 교수인 저자가 체계적으로 불교세계를 안내한다.

신국판 / 340쪽 / 값 5,500원



강건기 「불교와의 만남」



맑고 넉넉한 삶을 위하여

불교방송(BBS) 교리강좌를 통해 1백일 간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강건기 교수의 불교이야기. 필자의 신앙과 수행경험을 토대로 이상적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국판 / 496쪽 / 값 6,500원

여기, 제대로 된 불교책 있습니다!

불·교·공·부·하·기·좋·은·책·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불법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불법을 알았어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동안 불교를 안내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여기 이 책들을 만나보십시오. 아주 쉽게, 자상하게, 감동적으로 씌어졌습니다.
이 책들은 불교를 이해하여 삶을 지혜로 살려내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불지사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8-6 뉴장충빌딩 2층
TEL : 277-2676(代) FAX : 278-9118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9)

其一 軟衣美食 切莫受用
(기일은 연의미식을 절막수용하라)
自從耕種 至于口身 非徒人牛 功力多重
(자종경종에 지우구신히 비도인우의 공력다중이라)
亦乃傍生 損害無窮 勞彼功而利我
(역내방생의 손해무궁커늘 로피공이리아라도)
尙不然也 況殺他命而活己 奚可忍乎
(상불연야인테 황살타명이활기를 해가인호오)

첫째,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부디 받아 쓰지 말지어다.
밭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먹는 것,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때에 뭇 생명들의 손상도 한량없거늘 상대가 수고한 공으로 내가 이로운 것도 오히려 그러려니하기 여려운 데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이 몸을 살리는 게 어찌 차마 견딜 일이겠는가

農夫 每有飢寒之苦 織女 連無遮身之衣
(농부도 매유기한지고하고 직녀도 연무차신지의인데)
況我長遊手 飢寒 何動心
(황아장유수하니 기한을 하염심이랴)
軟衣美食 當愼重而捨道
(연의미식은 당은중이손도며)
破衲疏食 必飽暖而修業
(파납소식은 필시경이적음이라)
今生 未明心 滴水 也難消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란소니라)

둘째, 자기 재물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 탐하지 말지어다.
삼악도 괴로운 길에는 탐하는 업이 첫째요 육바라밀 제도문 중에는 보시행이 첫머리라.
간탐은 마음공부 길 능히 가로 막고 자비 보시는 반드시 나쁜 길 · 악도를 방어한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빌고 구하거든 비록 궁핍하더라도 아끼고 애석해 하지 말라

來無一物來 去亦空手去
(래무일물래오 거역공수거라)
自財 無慳志 他物 有何心
(자재도 무련지어든 타물에 유하심이리오)
萬般將不去 唯有業隨身
(만반장불거요 유유업수신이라)
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 손으로 간다
자기 재물에도 연연할 게 없거든 남의 재물에 어찌 마음 두랴
만반으로 갖춘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이 이 몸을 좇을 것이라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기 되어도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嗟曰, 三途苦本因何起 只是多生貪愛情
(송왈, 삼도고본인하기오 지시다생참애정이로다)

사흘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 되어도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농부도 매양 춥고 굶주리는 고통 속에 지내고 베짜는 여인도 늘 몸을 가릴만한 옷이 없는데 하물며 나는 오래일하지 아니하니 주리고 추운 것을 어찌 싫다 할수 있으랴. 부드러운 옷,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그 은혜 무거워 도를 덜어내고 헤진 옷에 나물 밥은 시주 은혜 가벼우므로 반드시 음덕이 쌓이리니 금생에 이 마음 밝히지 못하면 물 한방울조차 소화하기 어렵나니라

頌曰, 菜根木果飽飢腸 松落草衣遮色身
(송왈, 채근목과위기장하고 송락초의차색신이오)
野鶴靑雲爲伴侶 高岑幽谷度殘年
(야학청운위반려하고 고잠유곡도잔년이어다)

게송으로 말하노라. 풀 뿌리 나무 열매로 주린 창자 달래고 솔가지 풀 옷으로 몸을 가리네 노니는 학과 푸른 구름 벗 삼아 높은 뫼 그윽한 골짜기에서 여생을 보내노라.

其二 自財不慳 他物莫求
(기이는 자재불인하고 타물막구어다)
三途苦上 貪業在初 六度門中 行檀居首
(삼도고상에 탐업재초요 육도문중에 행단거수니라)
慳貪 能防善道 慈施 必禦惡徑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시는 필어악경이라)
如有貧人 來求乞 雖在窮乏 無吝惜
(여유빈인이 래구걸커든 수재궁핍이라도 무인석하라)

我佛衣盂生理足 如何蓄積長無明
(아불의우생리족커늘 여하축적장무명인고)

게송으로 말하노라.
삼악도 고통은 본래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만 여러 생에 탐애한 정이로다. 우리 부처님의발로 법다이 족했거늘 어찌해 재물 쌓아 무명을 기르려는고

其三 口無多言 身不輕動
(기삼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어다)
身不輕動則息亂成定 口無多言則轉愚成慧
(신불경동즉식란성정이오 구무다언즉전우성혜니라)
實相離言 眞理非動 口是禍門 必加緘守
(실상이언이오 진리비동이라 구시화문이니 필가엄수하고)
身乃災本 不應輕動
(신내재본이니 불응경동이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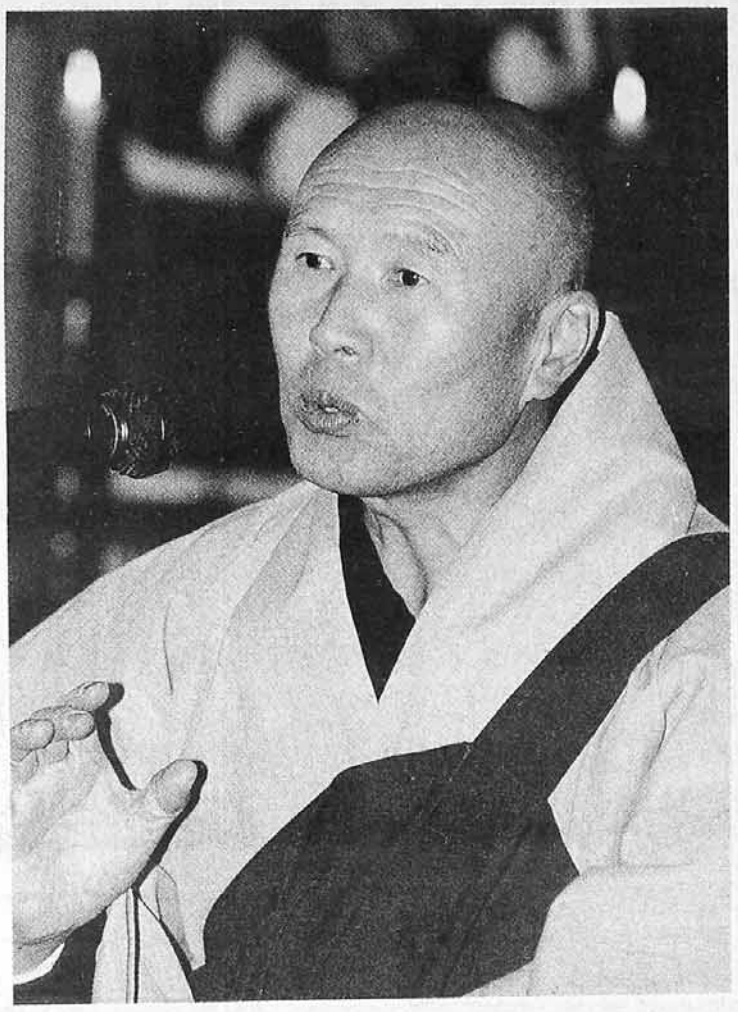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볍게 굴지 말라
몸이 가벼이 움직이지 않은 즉 어지러운 마음 쉬어 선정이루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안으로 찾은 즉 어리석음 되돌려 지혜이루리라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참 이치는(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키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응당 가볍게 굴어서는 안된다.

龍 眼

지상 법석

'고맙습니다' 한 마디 속에도

우룡 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불교인들이 불교에 발을 들이면서 놓아야 할 주춧돌이 세가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이 잘 안됩니다. 가족을 부처님으로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와 모든 법계의 유정물(有情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주춧돌은 '나(我)'라고 하는 고약한 생각입니다. 주춧돌이 잘못되었으니 착각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 놓은 주춧돌

가정에서 내외간이라고 임의롭게 한 마디씩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어떻게 꽂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 별나게 가슴에 딱 꽂혀서 다른 때처럼 잘 풀어지지 않는 걸 여러차례 겪었을 겁니다. 바깥 어른들도 평소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유난히 가슴에 사무쳐 감정이 솟구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결(冤結)의 씨앗입니다.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의 과학자들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이론적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소릴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에 '내다 내다'하는 자체가 하나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 많은 시간동안 수 백번 나고 죽고 하면서 식물, 벌거지, 짐승을 거쳐 사람이 되어 수 백번 바뀌어진 용심(用心)이 내다 내다 하는 이 존재입니다. 현재 내 용심이 아무개 한 사람의 용심인 줄 알지만 , 여기에는 벌레, 짐승, 인간 때의 용심이 터져나온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동에도 몇 백번 죽었다가 나고 한 벌레, 짐승의 행동이 여기에서 터져나오니, 지금 우리가 아무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靈)과 육체의 행동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착각이 주춧돌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착각 속에 돌아갈 수 밖에 없죠.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향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걸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반야'입니다. 반야는 '진리와 실천과 결과'라는 말이 합한 말입니다. '마하반야'는 크게 남보다 뛰어나게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하반야바라밀은 남보다 뛰어난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안의 저 언덕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벗어났을 때 불교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불교인은 언제나 마하반야바라밀에 서있는 동안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향상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불교인 자격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탈하고 제자리걸음 또는 후퇴생활을 할 때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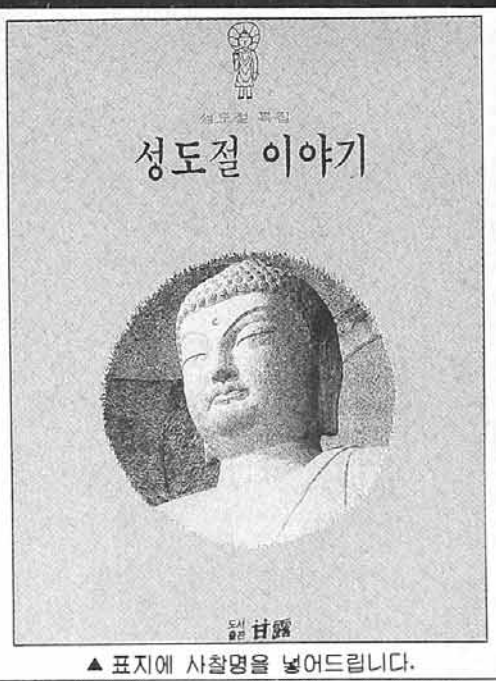
그리고 보살의 실천은 나 혼자만이 해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희생이 되고 뒤로 물러 나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을 밀어드리고 성취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성문(聲聞) 연각(緣覺)이나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은 보살은 무여열반(無餘涅槃)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승보살의 실천자는 유여열반(有餘涅槃)에 서 있지 무여열반을 바라거나 들지를 않습니다.
무여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을 여읜 번뇌장을 끊은 상태로서 현재의 신체까지 멸해 없어진 곳에 나타나는 경지입니다. 반대로 유여열반은 자신의 수행으로 고(苦)의 원인인 번뇌는 끊었으나, 아직도 과거의 업보로 받은 신체는 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소승의 사람들은 무여열반을 바라지만, 대승의 사람들은 유여열반에 머물러서 자기가 깨친 차원을 주위 사람에게 전부 알려드려서 해탈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이 유여열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보살행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곁의 사람에게 물질적 보시를 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나는 차라리 진흙 바닥에서 고생을 해도 타인을 위해주는 행위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흔히 불교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라면 절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림으로라도 불상이 있어야 한다거나 머리깎은 스님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불교인이라고 하면 으레히 그게 먼저 있어야 개인과 단체의 실천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착각이죠.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영원히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이 떨어져 나가야 진실한 불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법을 꼭 스님네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자들끼리 모여 서로 어떤 기회에 불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대화를 나눠 서로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설법이요 부처님 제자가 모이는 설법장인 것입니다.
〈금강경〉 속에 나오는 상(相)이 바로 우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 내 아들,

성도절 법회때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성도절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새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앙굴리말라
2)용녀의 성불
제5부 성도재의 노래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200권이상 주문시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넣어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1권당 1,000원
⇨크기/4×6판
⇨책표지에 사찰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법보시판)

• 크기/4×6판	• 크기/국판(양장제본)
• 법보시가격/1,500원	• 법보시가격/3,000원
• 편집/가로쓰기	• 편집/세로쓰기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200권이상 주문시)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 로 출 판 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법륜BD 1층
☎ (02)723-4306~7 FAX (02)738-8682

지상 법석

깨달음의 길 열려 있으니…

끊임없이 착하고 참된 마음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지워나가는 것이 불교인의 길입니다. 진리와 연결된 실천으로 끝없이 향상 되려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할 때 생과 사를 벗어나 대우주 속에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我相이 바로 우상… 잘못 과감히 고쳐야
인과 법칙 믿으며 이웃 축원하는 삶 살도록

내 딸이라고 하는 상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의 아들, 아버지란 생각에 사로잡혀 아들, 부모로서의 참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정진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대우주의 일들을 좀 더 넓게 쳐다보고 한껏품 가려진 배후의 세계를 쳐다보려 노력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잘못은 저질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게 염불이고 기도요 화두선이고 독경의 생활이 됩니다. 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나라고 하는 착각이 주춧돌이 되어 욕망, 분노등의 감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다스릴 때에 좀 더 대우주의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망, 감정으로 치닫는 마음을 집중시켜 꺽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염불, 화두, 좌선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결국 대우주와 한 덩어리인 까닭에 우리의 생활은 대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몸을 가지고 대우주의 현상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차원이 기도 염불 독경 화두의 생활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고 살면 인간의 죄악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대우주를 내 손아귀에 잡아놓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말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차원이 우리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착각을 물리치고 눈을 바로 뜨면 대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과 광영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으며, 착각이 모든 걸 가로막아 욕심 속에 허우적 거리면 캄캄한 어둠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無上正等正覺)가 이뤄집니다. 그건 바로 '아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났을 때 꺽지 말고 유지해서 끝없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착하고 참된 마음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지워나가는 것이 불교인의 길입니다.

보살의 생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진리와 연결된 실천으로 끝없이 향상 되려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할 때 생과 사를 벗어나 대우주 속에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참으며 부지런히 노력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울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메아리가 생기기 전에 거기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거나 독경소리를 듣는 것은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소리가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 소리를 바로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른바 문(聞)·사(思)·수(修) 삼혜(三慧)의 시간입니다. '문혜'는 보고 듣고서 얻는 지혜이고, '사혜'는 마음으로 고찰해 얻는 지혜이며, '수혜'는 고찰을 마치고 입정(入定)한 뒤에 닦아서 얻는 지혜입니다. 또한 관세음(觀世音)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있기 전의 진리의 세상 소리를 들은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나를 버리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 가면 '불생 불멸 불구 부정'한 나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온(五蘊)은 모든 잘못과 실수의 원천입니다. 망상의 분별을 일으키는 헛된 오온이 가져다 주는 결과의 무서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걸 알면 한없는 복덕이 함께 하지만 믿지 못하면 영원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세생생 거짓말에 속아 허우적거리면서 참된 것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양도 이름도 불일 수 없고, 만질 수도 붙들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의 생활, 마하반야바라밀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꽃, 감자, 수박 씨앗 한톨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만든 원인과 결과를 믿지 않는게 중생입니다.

작은일 소홀히 말라

많은 불서를 읽고 스님들을 만나고 절을 참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물에 뜬 거품을 만드는 꼴과 같습니다. 모양 있는 것, 말이 생긴 뒤에 나타나는 것을 진실인양 믿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만든 원인에 따라 복락과 칼날의 길이 갈라진다는 이치를 믿어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없이 고맙고 두려운 것입니다.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인과의 원리를 똑똑히 보고 똑똑히 믿어야 합니다. 대우주와 법계의 살림살이에는 묘한 도리와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를 알고 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자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소홀이 해서는 안됩니다. 부지런히 경을 읽으며 참회하고 기도하며 내 공덕으로 타인을 위해 축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각(先覺)이 이끄는 대로 경건하게 배우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부처, 중생과 수많은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무의 '무(無)'는 아닙니다. 한없는 공덕과 지옥 불이 함께하는 '무'입니다.그런 무의 세계를 쳐다보며 소리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대우주의 살림살이는 인간의 재주와 지혜, 상식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도리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한 몸가짐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뇌가 없이 편안하다는 극락은 우리가 생각하듯 즐거움만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구족(俱足)되어 있는 즐거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자꾸 원(願)을 세운 결과이지요. 고통과 상대되는 즐거움도 함께 떨어져 나간 세계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중생에게는 제일 무서운 것이 물질욕과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이 응어리가 떨어져 나간 세계가 바로 대열반의 세계입니다.

완전히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우리와 같이 살아도 생각 자체는 다릅니다. 시공 속에 놓인 몸뚱아리에 구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 진리를 깨친 맛은 도끼를 열두번 씻은 맛과 같다고 합니다. 도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색 무취의 경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주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더 눈을 돌이켜 감사의 생각을 일으킬 때, 가정과 사회가 화합된 극락이 펼쳐집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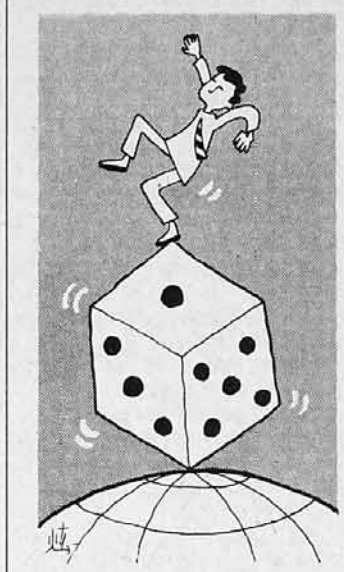
확률과 통계

김 성 규

확률도 거시적으로 보면 주어진 길
현재 내모습 과거에 쌓은 업의 반영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가버린 젊음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자식도 클만큼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정신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길 때이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혼자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된다.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아들 책상에 앉아 있노라면 간혹 엉뚱한 생각들이 스친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텐데. 몸에 살이 조금만 더 빠지면 정말 늘씬하고 좋을텐데. 그러다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 불현듯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대학시절이 문득 창문의 틈새를 비집고 햇살처럼 다가온다. 그 때 같은 서클에 있었던 자신을 쫓으라고 따라다니던 그 남학생이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만약 그 남학생과 결혼하였다면 아들은 그 남학생을 닮아 공부도 잘 할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여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텐데.

그러나 확률이란 얼핏 보면 불확정한 듯이 느껴지지만 거시적으로 말하면 99.99999%의 확실성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천만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모습 밖에 다른 모습도 될 수 없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른 삶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확률이다. 스님은 죽다 깨어나도 스님일 뿐이며, 학자는 죽다 깨어나도 학자의 몸밖에 받을것이 없으며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확률인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1/6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4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사위를 백억번 던졌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던지더라도 1이 나올 확률은 1/6인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주의 질서가 확률과 통계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일어날 일만 있어났으며, 인과에 어긋나는 것은 단 한 사건도 없었던 것이다. 인과가 분명하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지옥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화내는 마음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아귀(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탐욕심을 내어 욕심스러운 마음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아귀의 과보를 받는다), 축생(자신 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축생의 과보를 받는다), 아수라(어리석은 마음이 가벼우면 아수라의 과보를 받는다), 인간(화내는 마음이 가벼우면 인간의 몸을 받는다), 천상(탐하는 마음이 가벼우면 천상의 과보를 받는다))은 없는 것이 아닌가? 46억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길 때 인간도 같이 생겼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다른 별에서 지구로 우주여행을 왔다가 지구가 마음에 들어 지구에 정착했는 것인가?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는 46억년 인데 인간의 역사는 백만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인과는 거시적 인과와 미시적 인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인과는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 인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를 철저히 깨쳐 수 억겁동안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윤회의 굴레를 확연하게 알고 나면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인과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모진 상자 속에 입자가 하나만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온도계의 눈금을 보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입자는 좀처럼 온도계에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충돌하지 않으므로 온도계는 0도를 가리킬 것이며, 우연히 입자가 온도계에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그 속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따라 온도계는 100도를 가리킬 것이다. 만약 입자가 온도계와 비스듬히 부딪친다면 온도계의 눈금은 20도를 가리킬 것이다. 이와같이 입자의 수가 적을 때는 온도의 요동이 심하여 우리는 지금 몇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자 속에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들어 있다면 빠른 입자, 느린 입자, 비스듬히 충돌하는 입자, 충돌하지 않는 입자등 여러가지 입자들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온도계와 부딪칠 것이므로 온도계의 눈금은 정확하게 32도를 가리킬 것이다. 이것이 통계이며, 확률인 것이며, 자연현상도 우주의 흐름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이 바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억겁을 윤회하면서 자신의 아뢰야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수천억만개의 업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영남대 외대교수〉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 화: 249-3541 호출기: (012)207-3672
핸드폰: (011)216-3672 담당자: 강 양 구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783-6113 , 253-6894~5
팩스: 785-1228 , 253-6895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9

그림 · 최규일

나는 파계했다 마음이 어찌 몸과 다르겠는가

밤새도록 파도치다

접시의 불이 꺼진 뒤 심지 끝이 약간 탔는지 그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없이지자 이번에는 우녀의 마르지 않은 머리에서 나는지도 모를 풋풋한 냄새로 이어졌다. 본디 인담이 우녀를 데리고 이 섬에 건너 온 이래 그녀가 기거하는 곳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녀가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서 혼자 두기를 단념하고 오랜 수행자의 자신으로 한 방을 쓰기로 한 것이다.

한양에서 돌아오자 그동안 전혀 딴 사람이 되어있는 우녀 앞에서 거구로 인담이 그녀의 능(能)에 대하여 소(所)의 처지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마치 어린이처럼 그녀가 시키는대로 맨몸을 보이게 내버려 주었고 그 맨몸의 목욕까지 마치는 동안 그는 그녀의 객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 생각은 어떤 후회나 체념도 아니었다.

"…내가 무씨(武氏)의 후신(後身)을 데려왔나. 이렇게 되다니"

무씨란 두말할 것 없이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를 가리킨다. 미미한 신분의 여자가 이윽고 황제로 등극할 제 아들까지 죽이고 천하를 장악한 권세의 여제(女帝)였던 것이다.

약간 과장된 비유에 틀림없으나 적어도 이 무욕도의 갈대지붕 암자 안에서는 그녀가 자리잡고 있는 위세가 까닭없이 당당하였다. 그녀는 벌써 의젓하게 잠들어 있었다. 귀기울이면 그녀의 잠든 숨소리가 소록소록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럴 경우 차라리 파도소리는 숫제 어디론가 다 철수해버린 군대처럼 자취가 없어야 하였다.

그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파도소리에 익숙한 것이므로 차츰 두 사람의 음과 양의 체온이 가세(加勢)한 방안의 온기는 하염 없어야 하였다.

처음 인담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눕혀진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등짝이 방바닥에 딱 늘어붙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내가 낭떨어지 바위가 되었는가. 왜 이다지 용을 쓸 수 없단 말인가'

그의 옆에 단정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우녀의 자세에는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은 평상(平常)이 유지되는 것을 그 어둠 속에서도 여실히 알 만하였다.

그렇게 그녀는 잠들면서 젖은 머리가 곱게 말라갔고 반대로 인담은 그녀의 잠든 숨소리에 귓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임춘의 어떤 시에 「다락에 올라 퉁소 부는 짝이 되지 못하고 달로 달아나서 도리어 약을 훔치는 신선이 되었네(乘樓未作吹簫伴 奔月還爲竊藥仙)」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떠올린 인담으로서는 우녀가 마치 그런 신선이라도 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럴수록 인담 자신은 그의 오랜 독신 수행의 굳건한 심신에도 불구하고 그 신선의 잠에 대해서 결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녀의 몸에서 풍기는 그 체취가 무엇보다도 인담의 잠을 멀리 달아나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 그에게서 틀림탁말탁하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 한숨이야말로 인담의 것이기보다 방안의 어둠에 필요한 것으로써 그것을 인담의 몸 안에서 아주 조금만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조금만으로도 가히 신선의 약초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의 정수(精髓)인지도 모른다.

문득 인담은 고려시대의 스님 담인이 꿈에 나타난 사실을 되새겨 보았다. 그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꿈이었고 그 소중한 꿈 이상으로 소중하기 이를데 없는 꿈 속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스승은 누구인가. 스승일진대 법(法)을 이어주는 어떤 징표가 있어야 하거늘 한갓 세상으로부터 영영 잊혀져버린 한 불우한 시인의 문집(文集)이나 꿈 속에서 가리켜준 것이 아닌가.

혹시 꿈 속의 스승 담인이 임춘 자신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막역한 친구가 아닌가. 친구가 아니라면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사이의 사람이란 말인가.

"모를레라"

라고 인담은 그의 옆에 누워있는 우녀의 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 대신 마음 속은 벌판 가운데 헤매는 짐승처럼 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다른 사람들의 스승과 같지 않다. 무엇보다 몇백년전의 사람이요 그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진 숭배의 대상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인담에게 고려의 승려 담인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이 기이한 인연은 너무나 불교적이었다.

불교는 해탈이 그 궁극의 목적이다. 불교는 궁극에 이르는 마당에서 윤회하는 우주와 나, 세상과 나, 너와 나라는 관계역시 한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해탈과 윤회 그것은 처음에는 서로 모순을 낳아야 하였다. 그 모순을 녹이는 일이 불교의 역사라 할 것이다.

비록 무욕도 둘레를 터전으로 삼고 하늘 가득히 날아다니는 갈매기인들 그것이 어찌 몇백년전의 담인화상과 무관하다 할 것인가. 갈매기가 그러할진대 하물며 인담에게는 이미 꿈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연을 맺은 처지인 것인가.

그런 스승이 몇백년동안 숨겨진채 햇빛을 보지 못한 시와 그밖의 글들을 찾아내게 인도하였다. 그것이 경장(經藏) 밖의 어떤 벌난 논장(論藏)도 아닌 바에야 하필이면 시문(詩文)이라니.

물론 인담이 시 몇 수를 지어서 바닷바람에 날려버리는 시승(詩僧)을 겸한 선승이기는 하지만 선승인 바에 한 소식에 다가가면서 마치 새가 날라가며 똥 한 방울을 땅에 떨어뜨려 땅 위에 걸어가는 말 엉덩이에 떨어져도 그 사실을 모르는 말인양 있으나마나한 법열(法悅)의 시 한 구절이야 어찌 멀리할 것까지 있겠는가. 그렇다면 임춘의 세계와는 다른 불교세계 가운데 실상 임춘 따위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이 문집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만난 인연으로 한 지향없는 낭자 우녀를 만났고 그녀를 데리고 오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 관계야말로 윤회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공부에 대해서 새삼 윤회를 확인케 하지 않는 바 아니었다.

"모를레라. 모를레라."

그 우녀가 이제는 인담에게 대해서 무척 출무성한 여자가 되었고 그것 말고도 그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정신의 우위(優位)를 갖춘 여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모로 누워있던 그녀가 등대기를 방바닥에 대고 누웠다.

인담이 그녀의 동작과 함께 그녀의 몸 옆에 그의 몸이 접촉 된 것을 굳이 떼려하지 않았다. 인담은 흡사 소년처럼 그 풋풋한 젊음의 처녀에게 마음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담의 몸속에서 순환되고 있는 피가 우녀의 몸속으로 옮겨가 순환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우녀의 그 순수한 피의 더움이 인담의 몸을 싸고 있는 핏줄 전체를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순환되면서 두 사람의 몸은 어느덧 하나의 몸으로 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서로 몸과 몸이 슬쩍 닿은 상태가 이 지경이니 만약 그들에게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손잡은 탄트라의 성력(性力-샤티)을 섬기는 그 황홀경인 비밀불교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좌도(佐道)의 이단(異端)이야말로 이 외딴 섬 무욕도를 다 불태우고 남았을 것이다.

인담의 생각 가운데서 한동안의 꿈결인듯 우녀와의 농염한 육신관계가 일어났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고 그의 숨결은 홀로 가파로워졌다. 그런 공상 가운데서 우녀의 몸 위에 뛰어오른 그가 지극히 진지해졌을 때였다.

"으음!"

하고 우녀가 잠에서 깨어나 짧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듯 마는듯 인담의 공상이 뚝 끊어져서 마음을 다잡은 근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이미 파계를 한 것이다. 내 마음이 어찌 내 몸과 다른 것이라고 하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초심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라는 회한을 씹을 때에야 그의 귀에는 제대로 밖의 파도소리가 이제껏 수없이 뒤척인 그대로 뒤척여와 섬의 바위를 때려 제 몸을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한밤중의 파도처럼 순교적인 것도 없으리라. 하현(下弦)달이 떠오를 무렵이었는데 그때까지 인담은 지향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현실의 파도소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자의 잠은 다시 깊어갔다. 남자의 눈은 너무나 많은 전생에 실컷 잠잔 탓인지 때가 흘러갈수록 약간 지치면서 한 층 맑아지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감은 눈을 떠보기도 하였다.

"왜 주무시지 않으셔요 스님?"

이라고 잠든 우녀가 잠을 깨어 인담 쪽으로 앞을 향하였다.

여자의 떠내려가는 것 같은 매혹의 체취가 더 인담의 코에 스며들었다.

"스님이 주무시지 않으시니 제 잠이 깨어버렸어요."

"…"

"스님"

인담은 그녀에게 할 대꾸가 없었다.

"인담스님"

인담은 그 몸 속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있던 말 한마디가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우행자! 이제부터 그대가 내 스승인가 보오."

그때였다. 우녀가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일어났다. 그녀의 실의(室衣) 한 자락이 풀려서 그녀의 가슴이 가려지지 않았다. 먼동빛에 그것이 눈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아니어요! 스님이야말로 새새생생 제 스승이세요."

"…"

인담은 두 눈을 절대로 뜨지 않으려는 것처럼 굳게 감아버리고 있었다. 오직 그에게 살아있는 것은 귀 뿐이었다.

그 귀 가득히 파도소리가 섬 전체를 들이쳐 난파선(難破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섬 기슭의 바위벼랑을 온몸으로 부딛쳐 죽어가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인담에게 문득 밀교도량(密敎道場)의 수미산이 떠올랐다.

오직 그에게 살아있는 것은 귀 뿐이었다. 그 귀 가득 파도소리가 섬전체를 들이쳐 난파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섬 기슭의 바위벼랑을 온몸으로 부딛쳐 죽어가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인담에게 문득 밀교도량의 수미산이 떠올랐다. 법신(法身)으로서의 수미산이.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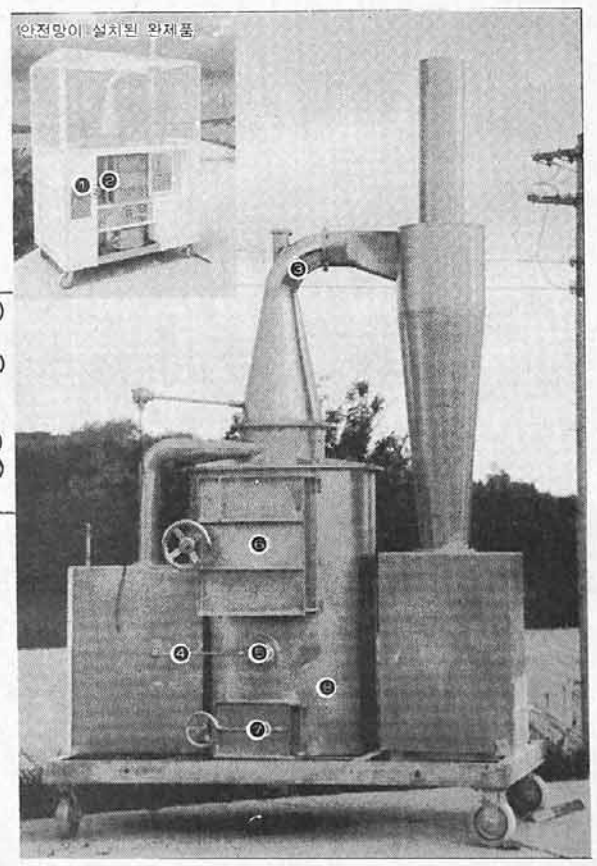
폐 비닐 ·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 ·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 · 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독자토론

부 적

대형사고 늘며 부적 인기

분명한 비불교, 신행의 방편 안돼



◇ 민간신앙으로 뿌리 내려온 부적은 분명히 비불교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정월이면 일부사찰에서 부적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적(符籍)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은 입시철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시기여서 부적 인기는 식을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적은 현대에 들어서 목걸이나 열쇠고리등의 괜시형으로 변형되어 젊은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계사 부근 불교용품상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매장의 많은 부분이 이들 부적형 용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명이 찾고 있다.

부적은 원래 종이 위에 글씨나 그림,기호 등을 그린 것으로 그 기원은 인류가 바위나 동굴에 주술적인 형상을 그리던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형태와 비슷한 빨간색으로 그리기 시작한 부적은 10만년이 넘는다는 설이 있다. 부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술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즉 부적을 지닌 이에게 악귀가 붙지 않는다는 믿음 따위이다. 나아가 부적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다.

몇년전 한정심 법사가 서울 시민 3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이 부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한법사는 부적에 대해 "실의에 빠진 사람이나 불안한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그릇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미신이라고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미신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부적은 음력 정월이 되면 '가정편안'을 위해 집안에서 간직한 고유의 전통관습"이라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당당한 민속으로 개발,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사찰에서 부적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일부 스님들이 사찰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을 매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 비불교"라는 것이 대부분 스님들의 지적이다. 부처님은 많은 경전을 통해 "부적 점술등을 하지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탐진치 삼독으로 지은 업은 자신이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지 부적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되는 부적을 방편이라는 미명아래 신도들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불자들의 주장이다.

〈엽〉

이렇게 생각한다

악업 쌓는 삿된 욕심의 징표

어느 사찰에서는 부적을 만들어 파는 일도 있습니다.

오히려 삿된 법을 포교하는 셈이 되지요. 바로 이런 것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저는 부적보다 수능엄경 다라니 주문의 부처님 말씀을 독송하는 것이 훨씬 더 불자다운 태도라 생각합니다.

부적을 사들이고 받아오는 일보다 부처님 경전 한 권 더 모시고 독송하는 것이 큰 보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적으로 효력을 보았다면 그것은 부적효력이 아니라 선업에 의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성으로 경전 한 권 모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에 오면서 부적도 다양해졌습니다.

자동차용, 가정용, 안방용, 주머니용, 사업용 등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이 항시 계심을 알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 명호를 부르면 가피를 입는다고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삿되면 부적이 되고, 욕심이 불보살이 되기를 원을 세운다면 큰 보배가 될 것입니다.

김 형 철〈택시기사 · 서울 관악구 신림5동〉

방편으로 쓰는 '마음의 의지처'

지난 30여년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자동차, 지갑, 집안 구석구석 부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우선 발등의 불부터 끄려고 했으나 뒷일은 자꾸만 굴레로 쌓여갈 뿐 어떤 명쾌한 해결책이 없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 내마음의 주장자(주인공)가 똑바로 서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대보고 저기에도 기대보고 했던 것 같다. 부적으로 인해 크게 좋아졌던 일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은 당연히 부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이전의 내 모습처럼 부적이 있으므로 해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불교에 대해서 또 부적에 대해서 좀 더 알고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름대로의 필요성, 유익성이 있으므로 부적은 아마 끝없이 존재하리라 본다.

이 지 은〈주부 · 안양시 평촌 샘마을〉

어리석은 관습, 버리니 홀가분

결혼한지 벌써 15년째.

더불어 부적을 접한지도 꽤 오래 된것 같다.

그냥 삶을 사는데 부속물인양 아예 없어서는 안되는 것 같은 습관처럼 접해온 것이다. 더욱이 남편이 사업하는 관계로 부적은 관례처럼 되어졌었다.

이사라도 가려면 그집에 부적 붙이고 시간 맞춰서 온갖 정성 드려서 짐을 옮기고 회사 사무실 속까지 아니 붙인데 없으니 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행이었나.

철이 바뀌면 다시 태우고 바꾸고, 일이 잘되면 그 덕이었으리, 안되면 혹시나 하고 불안해 하고 …

그렇게 보면 그 세월이 아쉽기만 할 뿐이다.

난 요즈음 너무 홀가분하고 깨끗하고 당당하다.

모든 이 중생의 마음을 나의 뿌리인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긴 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부적이라는 관념에 이끌려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어리석음을 이제야 알고 영원히 벗어났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귀신아닌 귀신행을 하면서 마음의 온통 짐을 다 짊어진 채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른 불법을 만났으니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여여하게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김 애리자〈주부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현대불교 신문을 읽고

각계각층 다양한 얘기 마음에 들어
산중생활 · 복지단체 소식 늘렸으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찾았던 산사에서 현대불교를 접하고 창간호부터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그간 현대불교를 보고 느낀 것을 적고자 합니다.(불교신문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많은 면을 인터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스님, 예술인, 학자등 여러분야의 인사(人士)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또한 불교관련 행사등도 소상히 적고, 특히 만화로 엮은 법구경은 타 신문에 비해 독특한 것으로 즐겨 읽고 있습니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유서 깊은 사찰, 스님네들의 산생활, 타종교에 비해 뒤떨어진 불교 복지단체등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한된 지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실을 수는 없으나 "현대불교"를 모으면 불교의 현대사를 알 수 있고 또한 불교백과사전("현대불교"지는 특히 이 면이 부족합니다)으로 손색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번 대충 보고 버리는 "벼룩신문"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보고픈 현대불교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불교의 중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승의〈국립보건원 미생물부 제품과〉

만화 法句經 법구경

정진(不放逸)의 장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욕락에
빠지지 말라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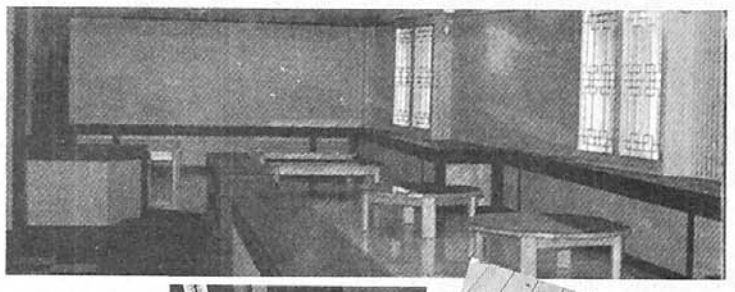


녹수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방 약차를 달이고
지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신행회 모임이나 소법회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법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파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자기를
전시 ·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이나
단체 · 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83 · 전화 736-3782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01, 568 - 2번

새로 나온 책

▲ 날저무면 보이는 별(오현 외 지음)=승려시인회의 여섯번째 작품집. 오현 성우스님을 비롯해 지원 혜관 정운 혜일 로담 해동스님 등 14명의 승려시인이 동인으로 참석해 122편



의 작품을 실었다.

승려시인회장 진관스님은 발간사에서 문학은 생명의 혼이며, 역사를 창조하는 꿈이라며 승려시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했다. 호반, 3천원.

▲ 불교의 효 유교의 효(미치하타 지음)=불교전반의 효사상과 유교의 윤리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다. '효를 설한 불교경전' '중국에서 성립한 효경전' '불교의 효도론' 등을 통해 출가가 곧 불효라는 관념을 부수고 출가가 효행 가운데 으뜸임을 밝히고 있다. 목정배 옮김, 불교시대사, 6천원.



▲ 싯다르타 왕자(조나단 랜다우 지음)=어린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싯다르타 왕자의 성장과정과 세상에 대한 사랑,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차정인씨의 그림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태정 옮김, 해인사출판부, 3천5백원.

▲ 중국불교철학사(심재룡 엮음)=중국불교의 역사적 변화와 교리의 전개과정을 중국불교의 전적 가운데 철학적 논서들을 종과별로 뽑아 번역, 정리했다. 중국불교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通時的)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주요 종파의 교리체계를 살펴 기본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 철학과현실사, 8천원.

「미얀마 72일」「수행합시다」「새불교 원초…」등

위빠사나 지침서 출간 붐

정성운 기자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위빠사나 입문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의 번역, 출판이 활발하다. 〈수행합시다〉〈미얀마 72일-위빠사나 수행기〉〈새불교 원초불교〉 등이 최근에 출판된 이들 책으로, 〈미얀마…〉의 경우 불서로서는 드물게 6개월만에 3판을 찍는 등 독자들의 높은 관심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은 공안의 탐구에 의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간화선이다. 이를 전통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 여전히 염불 간경 등 여타의 수행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빠사나에 대한 입문서 및 부처님의 수행지침을 담은 〈대념처경〉 등의 번역, 출판은 남방불교를 '소승'이라 해서 가벼이 여기는 한국불교의 전통에 비추어본다면, 수행법의 새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미얀마 72일〉(논장)은 현오스님(영월 보덕사)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72일동안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며 쓴 수행일기를 모은 것이다. 미얀마 수도원의 특징은 수행중에 일어나는 변화와 느낌을 묻고 이에 대한 수행방법을 제시하는 큰스님과의 인터뷰이다.

"어깨의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집중을 하였으며, 잘 되고 있는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눈은 전방 1미터 앞을 보고, 다리를 교차해서 가장 편안하게 앉되, 허리의 척추뼈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랫배에 마음을 두고 배가 호흡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현오스님은 위빠사나를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 느낌 마음 법, 이 네가지 대상에 대한 마음집중 또는 알아차림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한국선이나 위빠사나는 사람이 문제지 어찌 수행이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한다.

위빠사나의 특징은 기존의 수행법과는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수행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누구나 신심만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수행합시다〉(현음 지음, 목우)는 위빠사나 실참지도 경험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책 속의 한 묶음인 '5일동안의 수행'에서 호흡에 대한 관찰과 수행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신체부위에 대한 관찰까지 초보적인 수행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수행법을 가르친 〈대념처경〉과 〈칼리마경〉을 번역해 실었다.

〈새불교 원초불교-수행편(1)〉에서는 '마음 길들이기' 현대인과 불교명상' 등 10편의 글을 통해 남방불교 수행방식의 요체와 명상수행의 여러 단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부처님께서 위빠사나 수행의 기초를 직접 설한 〈염신경〉을 번역해 실었다.



부처님 당시 수행법 알기 쉽게 풀이

한편 위빠사나 수행서 출간붐에 대해 동국대 정각원장 보광스님은 "간화선만이 유일·최선의 수행법이라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중생근기에 맞춰 염불선 마하지관 등 다양한 수행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빠사나 수행의 확산을 반겼다.

이들 책 외에도 90년대 이후에 나온 〈남방의 선지식〉(법보출판사), 〈명상비법〉(일지사) 〈마하무드라의 노래〉(〃) 〈불교를 찾아서〉(〃) 〈위빠사나〉(불광) 등이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화제의 책

칠조어론/박상륭 지음

가상 칠조가 세상에 던지는 깨달음의 잡설

지난 75년 우리 문단에서는 드물게 무거운 철학적 주제를 다룬 〈죽음의 한 연구〉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던 캐나다 거주 작가 박상륭(朴尙隆)씨가 장편소설 〈칠조어론〉(七祖語論·전4권)을 펴냈다.



◇박 상 륭씨

우선 '칠조'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불교의 선맥은 초조 달마로부터 혜가로 이어지다 육조혜능에 이르러 의발을 전수치 않음으로 단절된 것이 아닌가. 이 궁금증은 박상륭이 생전의 김현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풀어진다.

"여전히 나의 믿음은, 불자며, 보살들이며, 신들은 우리들 인간을 입어 내려와야 되며, 칠조, 팔조, 구조 들도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의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는, 자신을 맨 먼저 포함하여, 어떻게 우리 세상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에만 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를, 내가 불쌍했던 것이다."

또 김현의 해설을 빌리면, "칠조는 완성자로서의 칠조이다. 그 칠조의 칠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한대로 완전수이다. 그의 칠조는 그러니까 유마경의 주인공에 가깝다. 그는 돈오하였으나, 그의 육신은 중생의 육신이다."



세상을 돕기 위해 촛불승으로 등장하는 칠조는 근엄한 법문보다는 온갖 잡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같은 육식동물끼리 서로 해치는 수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지만, 이 제사의 제육(祭肉)은, 주로, 다산(多産)의 초식동물이 쓰여진다는 것도 주목을 요하는 점입지." 즉, '성(聖)의 중심에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중도(관)론' '진화론' '역진화론' 등 3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난해하다. 단어의 어려움도 물론이지만, '…있는데' '…감촉했으므로' 라는 종결어미, 무수한 쉼표, 장문의 문단 등의 문체도 익숙치 않게 특이하다, 박상륭이 품고 있는 말들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저잣거리의 밑도는 말과 선방에서의 윗도는 말이 서로 분명히 같은 말임을 깨우치기 위한 장치로서의 난해함이다. 〈문학과지성사, 각권 6천~9천5백원.〉

명사추천 불서100선

님의 침묵

보살정신·만다라의 장엄펼쳐



김 장 호 〈시인·문인협회 이사〉

사랑·희망의 노래…행인을 피안으로 인도

1926년 5월, 시집 '님의 침묵'이 처음 서울 종로거리 애동서관의 진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연애서간집인 줄 알고 사갔다고 한다. 자유연애를 구가하던 시절이라, 연애편지 문틀이 한창 팔려나갔던 어간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망발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님의 침묵〉은 88편 전편이 사랑의 시, 경외의 시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첫머리에 실린 시집과 같은 제목의 시 한 편만 두고 보더라도 그것은 한 여인의 님에 대한 애상에 젖은 한탄으로 가득하여, 이 시집을 축혼가(祝婚歌)또는 비천상(飛天像)으로 보는 견해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그 시를 읽고 고개를 들면 그 순간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가 눈앞에 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니, 그것이 곧 이 시집의 핵심이 된다. 이별을 한탄하며 슬픔을 되뇌인다고는 하지만, 지고지순한 품에 안긴 기쁨이 절절하여 그런 슬픔들은 어느새 부처님의 48종상앞에 가뭇없이 스러진다. 뿐인가, 공경스런 여성화법으로 말꼬리가 연이어 일체 합리적인 논리를 파괴해가면서 펼쳐보여 주는 일대 만다라의 장엄은 여느 경전도 따를 바가 아니다. 그것은 비단 님에 대한 사랑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수 없어요'에서 보다시피 자연이 지니는 신비감이 사람의 희망과 함께 어우러져 독자를 사로잡아서는 한용운의 신앙과의 대결에 함께 동참하게 한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님에 대한 애절한 하소연 일방으로 시종하는 찬송가가 아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비를 저미는 수행자 자신의 고행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나룻배와 행인'이 그것이다. "바람을 죄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기다"려서 겨우 행인들을 피안세계로 인도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나를 짓밟"다 뿐인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린다.

이것을 중생제도의 예사로운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다. 내가 제도된 연후에 중생들을 인도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 할 때, 나룻배의 경우는 오히려 〈내가 여태 제도되지 않았으니 남부터 제도해야 한다〉(自未度 先度他)'라는 그 보살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의 자비란 박애(Mercy)니 자선(Charity)이니 하는 기독교적 인류애하고는 관이한 차원에 놓인 정신이니, 이 시야말로 그 자신을 내어던져 중생을 구하는(捨身度衆)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록슈타인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유럽의 많은 진지한 이들이 그들의 회의 때문에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들 때 한용운은 거기서부터 부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회의와 신앙과 사랑이 미묘하게 얽혀들어 그 결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니, '나룻배와 행인'을 읽으면 그가 그런 무력감에 침진하기보다는 행복에 대한 기대와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소멸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님의 탓이 아니다. 내가 정진하지 않는 탓이다. 신앙이란 사실 앉아서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골천번 절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서는 가닿지 못할 경지라는 진리를 '님의 침묵'은 망울망울 꽃망울을 터뜨려가며 선연하게 비쳐주고 있다.

연말불서코너 설치 책방 '여시아문'

불교전문책방 '여시아문'은 연말연시 특화코너를 베스트 및 스테디셀러, 어린이불서, 신간코너, 선물용 연하불서코너를 설치했다.

연하불서코너에서 대원사의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빛깔있는 책'을 구입하면 우편발송용 봉투와 연하장을 증정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무소유	법정	범우사
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3	한글아함경	고익진	동국대출판부
4	나가르주나	깔루빠하나	장경각
5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6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효림
7	재미있는 인과이야기	임원용	여래
8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	우리출판사
9	화엄경(전12권)	부비 역	민족사
10	천수경	무비 풀이	불일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꿈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불교성전」

「어린이 불교성전」으로 아이들에게 불심을……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을
볼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인격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어린이 불교성전'은
우리 믿음의 뿌리요 불교의 미래인 어린불자들에게
바른 불교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경전입니다.



어린이 불교성전
큰묶음 하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큰묶음 둘.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큰묶음 셋.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큰묶음 넷. 여섯가지 바른 삶
큰묶음 다섯. 다듬어 가꾼 믿음



• 어린이 불자들의 필독서
• 어린이 법회용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정가 : 9,000원

도서출판 단이슬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8-22

책 구입처 단이슬 • 267·8101 법련사 • 733·5322, 723·0423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도서출판「단이슬」은 어린이 포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영화「까루나」

오백나한 조성에 통일염원 담아



◇ 청자 5백나한 조성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영화가 나온다. 사진은 영천 은해사 거조암에 모셔진 5백나한상.

도공 가족사 통해 분단의 상처 그려

이일목감독, 신년초부터 촬영 돌입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고려청자 5백나한상을 조성하는 도공 3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시라소니」「취모리」를 만든 이일목감독이 최근 시나리오를 탈고하고 제작사와 출연진 교섭에 분주한 이 영화의 제목은 「까루나」. 까루나는 자비를 뜻하는 범어이다. 촬영은 신년초부터 돌입하고 1년쯤 제작할 계획이다.



◇이일목감독

자비의 근원이 되는 용서와 화해를 중심 테마로 한 이 영화는 일제와 6.25 동족상잔 그리고 70년대를 잇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의 아픔과 통일을 희구하는 민족의 염원이 동해 바닷가 작은 암자에 조성되는 고려청자 5백나한 불사를 중심으로 애절한 도공의 가족사로 묘사된다.

동해 등명 낙가사에 70년대에 유근형거사가 조성한 청자 5백나한상을 보고 작품의 소재를 얻은 이일목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통일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접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영화는 국내 최대의 연기자들을 캐스팅해 작품성과 연기력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화는 전북 부안의 유촌리에 자리한 한 도공의 집에서 시작된다. 때는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놋그릇을 모두 징발해 간 후 사기그릇을 대량으로 구워내라고 성화를 부리는 시기이다. 유촌리의 도공 양천수(예정배우 · 안성기)는 대대로 물려 받은 청자 제조법을 버리고 사기그릇을 구울 수 없다고 버티며 일제에 항거한다. 그에게는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종식(〃 · 박상원)이고 작은 아들은 종길(〃 · 박중훈)이다.

양천수는 끝내 사기그릇 굽기를 거부하고 종길의 애인 분님이(〃 · 채시라)는 부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주의 소실로 들어 간다. 종길은 아버지와 고려청자가 원망스러워 가마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친다.

다시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옮겨진다. 전쟁의 막바지 어느 때에 유촌리에 빨치산이 나타난다. 그 대장은 바로 양천수의 둘째 아들 종길이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들이닥친 국군의 중대장은 학도 의용군으로 자원해 간 큰 아들 종식이다.

분님이를 차지했던 종길은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아이를 밴 분님이와 가마터에 숨어 있다가 형과 부딪힌다. 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양천수는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는 비극을 맛본다. 형은 동생을 살려 주지만 부대에 복귀해 사형처벌을 받고 동생 역시 빨치산의 의심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분님이는 양천수에게 갓난 아들을 넘겨주고 마을을 떠나 버린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70년대로 옮겨진다. 분님이의 아들이자 양천수의 손자인 진형이(〃 · 이병헌)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 애인 미란과 할아버지의 가마에 졸업작품을 빚으러 내려 온다. 그곳에서 진형은 할아버지 양천수로 부터 고려청자를 빚는 1천3백도의 환원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양천수의 조상이 몽고란때 몽고로 끌려가 청자를 만들때 그 신비의 빛깔을 내기 위해 아내가 몸을 태웠다는 얘기다.

그때 미란의 부모가 종길부친의 빨치산 행각을 알고 딸을 데리러 온다.

방황하던 진형은 지숙이란 실향민의 딸을 만나 동해의 어느 암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 주지스님이 자기의 생모인 분님인 것을 알게된다. 주지스님의 발원으로 진형은 청자5백나한상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비색이 나오지 않아 크게 번민한다.

결국 진형과 심장병이 걸린 지숙은 가마에 몸을 던져 육신을 태움으로 5백나한상이 조성되고 그 점안식을 하는 날 남북의 통일이 이뤄진다.

이같은 내용의 영화를 기획한 이 감독은 "영화「까루나」는 민족의 한인 통일을 위해 만든 것이며 그를 위해 부처님 가피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태〉

범패 구전선율 악보로 펴내

법현스님 영산재 구성 · 신앙적의미 상세히 밝혀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영산재(靈山齋)의 구성과 신앙적 의의를 밝힌 논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법현스님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영산재의 구성과 신앙적 의의에 관한 연구」가 그것. 그간 영산재에 대한 연구는 홍윤식(동국대) 한만영(서울대) 교수등이 해 왔으나 직접 영산재를 전수받아 시현하고 있는 스님에 의해 연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을 쓴 법현스님은 15년째 봉원사에서 영산재의 의식을 전수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범패의식을 직접 배우는 승려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됐다는 점에서 영산재에 대한 종교적 음악적 가치평가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현스님은 논문의 부록으로 그간 구음으로 전수되어 온 범패의 가락을 독특한 악보로 표기해 주목되고 있다.

스님이 만든 악보는 서양의 오음보나 국악보의 전형인 정간보등의 형식이 아닌 소리의 흐름과 높낮이를 선과 글자로기보해 독특하다. 범패의 악보는 한만영교수가 오음보로 표기했었으나 이는 음가의 기계적 분류에 지나지 않아 실제 전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범패이수자들의 얘기다. 이에비해 법현스님이 창안해 낸 악보는 실제 범패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리의 높낮이와 밀고 당기는 기교, 연음으로 미끄러지는 흐름등을 표기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현스님



◇영산재에 쓰이는 범패선율이 악보로 만들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태고종의 국가재난 소멸기원및 희생자 천혼국재에서 시현된 영산재 중 바라춤.

스님이 악보로 표기한 범패의 음률은 최근까지 시현되고 있는 각종 영산재에서 현존하는 어장(魚丈)인 송암스님, 벽응스님, 운공스님등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 그것을 기초로 악보화했다.

"범패의 연원은 우리나라 불교전래와 거의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라때에도 범패는 흥성했으며 고려때에는 국가 차원의 재 행사가 많았다는 기록이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 일제를 거치며 범패의 맥은 거의 단절 위기까지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봉원사를 중심으로 큰스님들이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범패를 배우려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불교 의식의 맥이 끊어질 위기가 아쉬워 이론적인 정립을 절실히 느꼈다는 스님은 "아직 손도 못된 부분이 허다합니다. 제가 시도한 악보작업도 절대적인 음가의 표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라며 계속적인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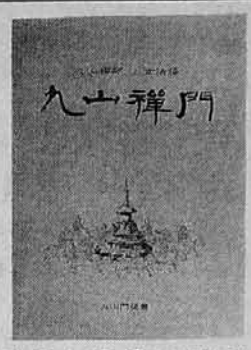
또 바라춤, 나비춤등 작법의 동작이나 그와함께 연주되는 사물의 소리에 대한 음률의 수, 재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연구등 영산재를 둘러싼 연구분야는 엄청나게 넓다는 것이 법현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산재와 관련한 역사성과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 재가 포함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등은 기존의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집성됐다는 것이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의 평이다.

〈임연태 기자〉



◇구산스님



15년간의 칼날같은 법어 생생

구산스님 상당법문집 나와

구산스님의 상당법문을 묶은 〈구산선문〉이 지난 15일 스님 열반11주기에 맞춰 발간됐다.

이 법문집에는 구산스님이 조계총림을 개설한 1969년 4월 15일(음력) 하안거 결제부터 83년 동안거 결제까지 15년 동안 송광사 총림대중을 위해 설한 상당법어가 실려 있다. 이 법어들은 스님이 손수 초록한 원고를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의미를 살필 수 있도록 한글로 풀이하였고, 한문으로 된 원문을 그대로 실어 참조토록 했다.

법문집 발간에 즈음해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관찰하여 지혜의 칼날이 더욱 더 날카게 되고, 뜻세워 잡은 자리가 더욱 굳건하게 되면 가히 미세한 법박을 탕진하고 무자(無字)의 법인을 깨닫게 되어 조사의 관문을 뚫고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라며 "구산스님의 육성이 담긴 이 법어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문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불심시심 〈8〉

산처럼 뜻을 세우다

覺性無迷亦無悟 (각성무미역무오)	깨달음의 본성에 미(迷)도 없고 오(悟)도 없으니
不離當處豁然開 (불리당처활연개)	당처를 놓치지 않으면 활연히 열린다
於斯更欲求玄妙 (어사갱욕구현묘)	이에 다시 현묘한 찾으려 하면
劫劫無能振法雷 (겁겁무능진법뢰)	무한 시간에 법의 우뢰 울리지 못하랴

이 시는 나옹화상(懶翁和尙)이 게송을 요구하는 제자 뇌선(雷禪)에게 준 시이다.

깨달음의 본성에 원래 어리석음이나 깨우침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에 더욱 매달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기에 끝내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깨달음도 홀연한 깨달음이 있겠지만 그 또한 지혜로움으로 구하는 수련의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점점 수련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는 점수(漸修)가 필요하다.

그러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바로 당해의 핵심적 당체를 알지 못하면 그 또한 어리석음의 헤매임이니, 이 당처인 그 곳을 제대로 찾고, 찾았으면 거기에서 벗어남이 없는 정진이 있어야 깨달음의 길로 들 것이고, 이 정진의 결실이 활연한 열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수련이요, 이 수련은 항시 정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홀연한 깨우침 뒤에도 점점 수련해야 한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가 강조된다.

활연한 깨달음이 열린 뒤에 다시 더 현묘한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한의 겁 속에 항시 법의 우뢰 소리가 울릴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선사의 이 시는 참선의 묘체에 대한 일반성을 음미한 것이기는 하나 이 시를 요구한 제자의 이름이 뇌선(雷禪)이기에 이 이름에 걸맞는 우뢰(雷)의 법음에다 맞추어 지은 시이다.

나옹선사의 시에는 이렇듯 시를 짓게되는 그 대상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거기에 어울리도록 한 시가 많다. 이것 또한 선사들의 병에 따른 약처방으로서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이종찬(동대교수)

신라 마애불상군 발견

경주남산서 · · · 6세기 조성 추정

경주시 배반동 남산 동쪽 탑골일대에서 6세기에 조성된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시대 대규모 선각 마애불상군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최병문씨가 발견해 신고한 이 마애조상군은 가로 7.5m 세로 3.9m 높이 4.1m 규모의 자연석 암벽면에 높이 2.9m의 5층 목탑 1기를 비롯, 좌우에 불상 8구 스님상 1구 등이 선각돼 있으나 마모가 심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발견된 탑골 마애불상군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근의 부처바위 마애불상군보다 앞선 서기 6백60년대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답사를 한 신창수 군화재 연구실장은 "보물급 석조유물로 평가되나 전면적인 탁본과 정밀조사를 한 후에야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통도사 · 내원사 등 소개

양산군 교육용 비디오 제작

양산군 교육청이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양산지역의 역사, 관광명소 등을 담은 비디오를 만들어 국 · 중학교 각급 학급에 보급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로의 열단」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디오에는 이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사찰인 통도사 내원사가 소개되고 있다.

분청도예 진수보여

장금정씨 서울전

불자 도예가 장금정씨의 「꽃핀 눈박이 사발전」이 14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 장씨는 분청으로 빚은 다기류와 사발 토우등을 내놓았다. 장씨의 전시에는 윤무송씨와 공동 제작한 작품도 다수 출품됐다.

장금정씨는 경남 하동의 새마골 가마(경남도문화재24호)에서 도예작품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질병의 큰 원인은 "수맥"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遠赤外線 線狀發熱體 使用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용 건강매트 — 알파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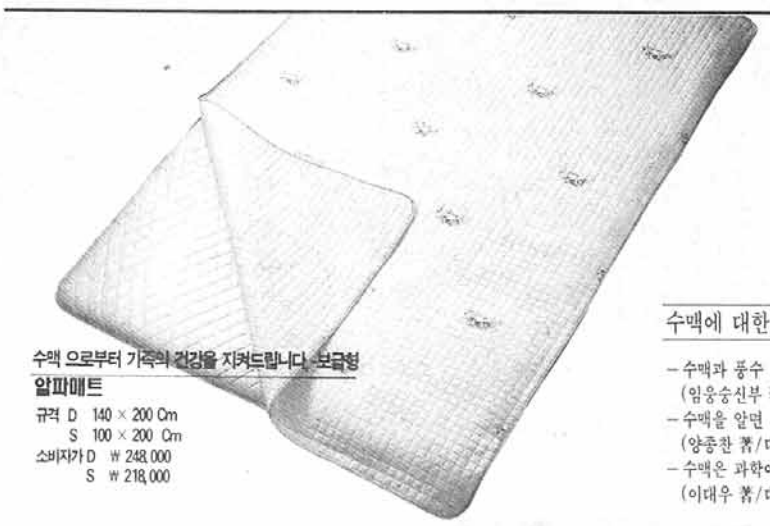
■■■■ 수맥을 무료로 봐드립니다. 부담없이 불러주십시오. ■■■■
■■■■ 수맥파를 방지하시면 하시는 일의 능률도 상승됩니다. ■■■■
■■■■ 특히 노인, 어린이, 수험생, 임산부, 환자들은 꼭 수맥을 방지하십시오 ■■■■

자매품

VIP 골드세트 — 수맥차단 / 원적외선 효과 / 음이온 발생 / 소비자가 ₩ 1,310,000 / 규격 140 × 200cm

골드카펫 — 수맥차단 / 원적외선 효과 / 음이온 발생 / 자카드 원단 / 소비자가 ₩ 765,000 / 규격 150 × 220cm

엔젤랜드 — 수맥차단 / 소비자가 ₩ 148,000 / 규격 100 × 120cm



수맥 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급형
알파매트
규격 D 140 × 200 Cm
S 100 × 200 Cm
소비자가 D ₩ 248,000
S ₩ 218,000

수맥에 대한 관련서적
- 수맥과 풍수 (임응순신부 著/세남 출판)
-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양종찬 著/대광 출판)
- 수맥은 과학이다 (이대우 著/대광 출판)

* 전자파장해시험필
전자파장해시험필 EMI 공업진흥청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

● 모집지역
전국 (시, 군, 구, 읍 단위)

● 대리점 자격
보증금 없음
초도상품대 가능자(무점포 가능)

● 특약점 자격
판매 유경험자(초보자도 가능)
소자본 · 고소득(무점포 가능)

문의전화 (02)649-1781,645-8180

합명회사 자성기업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13-21 회원빌딩 301호
TEL. (02) 649-1781 (대) / FAX (02) 645-8180

BBS 자비의 전화 4돌

혜담, 송강,계환스님 직접 진행 상담

청취자 바른 신행인도…인기 여전


◇혜담스님


◇송강스님


◇계환스님

명쾌한 답변으로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방송의 상담프로 「자비의 전화」(PD 김종학).

방송 4년을 맞은 이 프로는 그간 불자들에게 단편적인 교리 해설에서 바른 신행의 방법까지를 아내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 왔다.상담내용들을 묶어 묵직한 상담집까지 펴내 출판가의 화제를 낳았으며 기복불교를 정법신행으로 이끌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스님이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진행자와 상담을 맡은 스님이 함께 진행했으나 요즘은 스님이 오프닝에서 클로징 멘트까지를 다 맡고 있다. 그간 이 프로에는 성열, 해창, 해주, 일연스님이 상담석에 앉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혜담, 송강, 계환스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현재 진행을 맡은 스님 중 최고참인 혜담스님은 91년 가을개편 때부터 3년2개월째 마이크를 잡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제게 방송은 이타(利他)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고 말하는 스님은 월요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불자들을 라디오 앞으로 이끈다.

욕과 그름의 확고한 가치기준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불자들에게 항상 명쾌하고 밝은 길을 제시하는 혜담스님은 "마음자리를 밝히는 지혜로운 상담자를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려 한다"고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혜담스님의 바톤을 이어 받아 수·목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계환스님은 차분하면서도 가슴에 목목 와닿는 상담으로 피상담자뿐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처음에 방송진행을 맡았을 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3~4개월 하다 보니 신심이 나고 원력이 생기더군요." 질문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보다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고민한다는 스님은 질문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예, 보살님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구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금요일, 토요일.

절에 찾아오는 보살들과 얘기하듯 청취자들의 귀 가까이에 편안하게 전해지는 스님의 음성은 상담을 요청해 온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

"방송포교를 통한 색다른 수행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송강스님은 청취자들에게 항상 성실함과 진진함을 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송강스님은 질문자와 상담자가 하나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도필선 기자〉

「산사의 향기」 골든비디오상 차지

영상음반 대상서 「국토…」는 각본상



94 대한민국 영상음반 대상에서 대정프로덕션 '산사의 향기'가 골든비디오대상을, 동성프로덕션의 '국토문화순례'가 skc 각본상을 지난 10일 수상했다.

골든비디오 대상을 수상한 '산사의 향기'는 불자를 위한 언행(言行) 영화로 산문, 주요 법기, 관보살의 의미,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예절,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등을 담고 있다.

또, Skc 각본상을 수상한 '이 세용과 함께 하는 국토문화순례'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갈두부락과 미황사, 대흥사, 고산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 신비의 성 진도를 찾아 조상들의 자취와 얼을 좇아 끝없는 순례길을 밝히고 있다.

국토문화순례는 앞으로 10편이 계속 출시될 계획이다.

"보현행원송이 애창곡"

월주스님 백팔가요출연

월주스님이 지난 8일 불교방송 '백팔가요'에 출연, 친근한 불교지도자의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성큼 다가섰다.

방송에서 스님은 「보현행원송」과 배호씨의 「안개낀 장충단 공원」을 애창곡으로 밝히고 백팔가요 진행자인 김홍국씨와 이미자씨의 팬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주스님의 출연은 진행자 김씨가 방송을 통해 "신임 총무원장 스님을 백팔가요에 모시고 싶다"고 말해 이뤄진것이다.

「석굴암의 신비」금상

MBC 작품경연대회

94년 석가탄신일 기념특집 다큐멘터리 「석굴암의 신비」(PD 공재성)가 지난 2일 제9회 MBC 계열사 TV작품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대구 MBC가 92년 12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 제작한 「석굴암의 신비」는 이미 지난 5월 방송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석굴암의 신비는 석굴암의 구조과학을 통한 과학적 고증이나 자연환경을 잘 활용했던 민족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불교예술의 면모를 잘살려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불교」등 3편수상

보리방송 문화상

지난15일 부산 통도사 포교원에서는 제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진영상의 '한국불교', 부산 MBC의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주 KBS의 '민족의 선각자 백용성 스님'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푸근한 법당 어린이들은 신난다

겨울불교학교 문활짝…5백여 사찰 · 포교당

한자 · 영어 · 참선 · 서예 배우며 방학을 즐겁게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한 수련회 및 겨울불교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개설된다.

전국 각 사찰과 포교당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지도교사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던 '겨울불교학교'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최종 마무리에 한창이다.

금년 '겨울불교학교'에서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은 한자교실, 서예, 영어, 민속놀이, 글짓기,교리퀴즈대회,종물특강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어린이들이 단순한 불교배우기에 대한 실증을 쉽게 낸다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반응또한 매우 좋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예년과는 달리 올 '겨울불교학교'는 아이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실내라는 한정된 장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결들여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각 사찰의 지도교사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 전에 없는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겨울불교학교' '겨울어린이교실' 등을 통해 겨울방학을 어린이 포교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천왕사에서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는 이희명화 교사는 "이번 겨울불교학교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법회학습자료와 신간 불교지침서를 탐독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항상 부처님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화계사 이미숙 어린이 지도교사는 "작년에는 정진법회를 했으나 올해는 놀이중심으로 겨울불교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올 겨울불교학교는 부처님 품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한영우 기자〉

◇겨울방학 어린이 행사

사찰및 단체	행사명	일시	문의처
사천왕사	겨울어린이 불교학교	12.24~25	(02)939-3900
봉국사	겨울어린이불교학교	12.23~25	(02)919-0211
삼보사	겨울어린이불교학교	95.1.7~9	(02)352-6404
구룡사	겨울어린이불교학교	12.22~25	(02)575-7766
마하선원	겨울불교학교	매주 월, 수, 금	(02)952-0666
법련사	어린이 한문교실	12.23~25	(02)733-5322
법안정사	겨울 수련회	12.23~26	(02)646-4975
화계사	어린이 불교학교	12.23~25	(02)902-2663
조계사어린이회	어린이겨울불교학교	12.23~24	(032)663-7776
석왕사	겨울사찰순례	12.23~24	(032)577-5123
청소년교화연합회	겨울산사 불교학교	12.27~19	(02)736-9043
신흥사	겨울불교학교 및 수련회	12.25~28	(0339)57-3916
목동 청소년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12.23~25	(02)646-0181
법회관	겨울방학특강	12.26~95.1.28	(0433)43-3616
법주사	어린이 겨울학교	12.27~30	(032)873-0747
연화사	겨울불교학교	1월중순	(042)282-9270
은적사 포교원	어린이한자교실	95.1.4~27	(053)653-9232
삼학사	겨울수련대회	12.28~29	(0551)44-6464
한마음선원	겨울불교학교	12.28~30	(0343)72-3100
관음사	어린이겨울불교학교	1월중순	(0391)42-9975
해인선원	어린이겨울불교학교	12.27~30	(051)628-7200
삼광사	어린이불교학교	12.24~26	(051)808-7111
정토사	어린이겨울불교학교	12.24~26	(0522)74-3800
관음사	어린이겨울불교학교	12.26~28	(064)22-2829



「내가 꾸미는 부처님…」

어린이 학습교재 나와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발휘케 해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꾸미는 부처님 이야기」가 나왔다.

유치원생부터 국민학교 5~6학년생까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꾸민 「~부처님일대기」는 각 단원별로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어려운 단어와 문장의 뜻풀이와 함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실었다. 또한 한자의 습득을 쉽게 하기위해 각 단원에 있는 주요 단어 한자를 연습하게 해 어린이 법회교재로도 쓰일수 있게 하였다.

선재마을 발간, 값 3천원.

창종 24주년 불사봉행

총지종 23일 만보사서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오는 23일 오후2시, 대전 만보사에서 창종24주년 봉축불사를 거행한다.

이날 봉축불사에는 안효강 통리원장을 비롯, 종단스승들 및 신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창교절인 24일에는 전국사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팔리대 도서관 준공식

아마푸라종과 결연 3년

한국불교 여래종

한국불교 여래종(총무원장 법우스님)은 스리랑카 아마푸라종과의 자매결연 3주년을 맞아 스리랑카를 방문 상호우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석인왕종정 및 여래종스님과 신도 40여명은 지난 10일 스리랑카를 방문, 아마푸라종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문서 조인식을 갖고 팔리대학내 석인왕 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석인왕종정은 아마푸라종 최고 승왕에 취임, 한국불상 점안식과 기념탑제막식을 아울러 봉행했다.

동방불교대 수련대회

동방불교대학 동계수련법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동안 마이산 탑사에서 열렸다.

동방대학 한의예과 유아교육과 포교학과가 포함된 사물패 불멋, 천지화음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 성지순례를 겸한 철야정진을 거행했다.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한국 성지순례단은 봉(?)

새해 1월8일 성도재일을 앞두고 여행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교계신문 뿐 아니라 일간지에 불교성지순례 광고가 빼곡하다. 여행사마다 인도의 부다가야 대탑 아래에서 성도절을 보내기 위한 성지순례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인도는 건기에 들어선 열대지역으로 비교적 성지순례하기에는 적격이다. 또한 인도의 물가가 싼편이어서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여행사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스님을 비롯 불자들의 인도 성지순례 발길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 안내원들에 따르면 아직도 성지순례를 앞세워 관광만을 일삼는 불자들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성지의 참배객은 대부분 한국불자들이건만 그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반바지에 티셔츠, 등산용 조끼를 걸친 스님. 현지인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금을 놓고 참배하는 신도. 염주나 기타 불교용품을 무분별하게 싹쓸이하는 불자. 세계 각지의 불교도들이 모이는 인도의 불교유적지에서 불썽 사나운 모습의 한국 순례단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지를 보호하고 있는 현지인은 대부분 힌두교도들로서 이들은 한국 순례단에게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시금을 거둔다고 하니 한심스럽기조차 하다.

성지순례는 곧 수행의 일환이다. 검소하고 경건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신심을 돋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돈자랑의 기회로 삼거나 부처님땅을 다녀 왔다는 기념으로 자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해외의 성지에서 봉(?)으로 통하는 한국순례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신임 총무원장에 법은스님 선출

총화종, 분규종식 화합다짐

총화종이 9개월동안 지속돼 온 종단분규를 종식하고 종회와 집행부를 새로 구성, 종단화합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

대한불교 총화종 범종도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종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종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대범스님이 총무원장직을 자진사퇴함에 따라 새 총무원장에 김법은스님, 종회의장에 김일록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교육원장에 김대평스님, 감찰원장에 장기정스님, 호계원장에 주인현스님, 포교원장에 김남일스님, 문화원장에 유봉열스님등 총화종을 이끌어갈 6원장과 중앙종회의원 22명이 전원 새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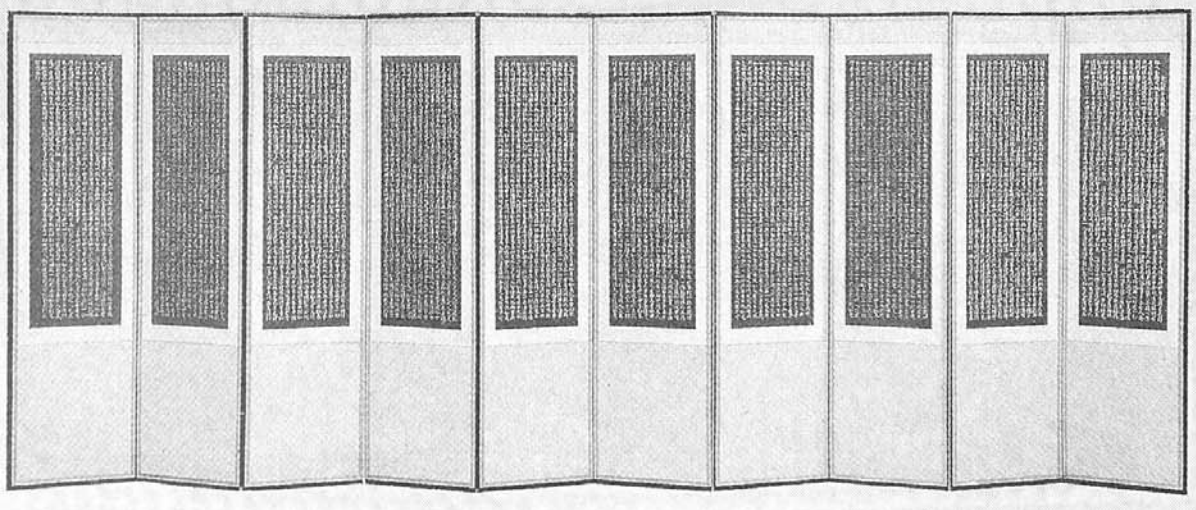
새 총무원장에 선출된 김법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창종이래 지난 30여년간 총화종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 집행부와 합심해 종단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화종은 지난 3월부터 전남정스님의 정화추진위원회 측과 이날 총무원장을 사퇴한 장대범스님측과의 마찰로 인해 종단 업무가 마비되고 맞고소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12월로 극적인 합의를 통해 종단화합이 이뤄졌다.

구독신청:737-8881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금강경 이제는 가격부담없이 모실수 있습니다.



■ 특 징
- 전면 :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숄륨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 격
- 높이 : 5자8치(175.8㎝)
- 폭 : 14자5치(439.5㎝)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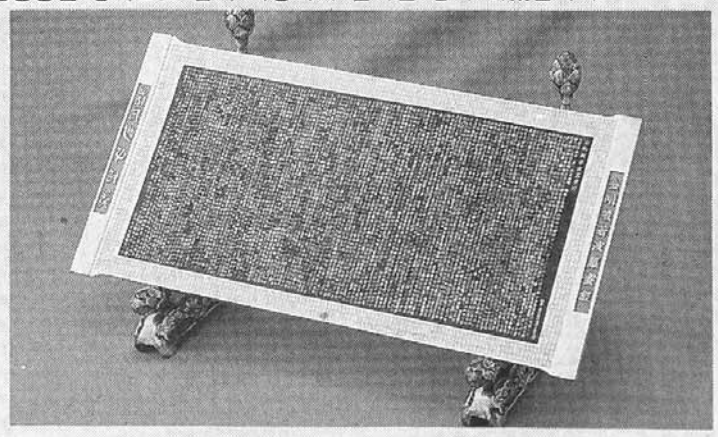
■ 포교가격
₩ 490,000
(현금및 은행신용카드)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진대중께 포교의 일환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성한 금강석 같은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담게 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 (㎜)
- 재질 : 주석(99.9%) 순금(24K)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드립니다.

핸들 불심 '전국포교망' 개통

운전불자연합회창립…서울·대구등 9개지역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웃돕기 솔선다짐



◇전국 9개지역 운전불자회는 지난 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한국운전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그 현판식을 봉행했다.

전국의 불자운전기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거리의 포교사로서 한층 전법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9개지역 운전불자회는 지난 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한국 운전불자연합회(이하 '한국운불연')를 창립했다.

회원과 관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총재로 추대하고 초대회장에 문영호씨(대전 운불연 회장)를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이태명, 김정수씨, 감사에 이한순 이학선씨, 사무총장에 오택현씨 총무부장에 강기근씨를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 문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운불연은 삼보를 받들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제 전국연합으로 출발했다"고 말하고 "달리는 차량, 거리의 포교사로서 전법에 앞장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운불연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운불연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불교의 대중화, 불법의 생활화, 불자의 지성화'를 삼대강령으로 삼고 전국 각 지역 단체간의 유대 강화 및 공조체제를 확립, 불교이념 구현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운불연은 대전본부를 비롯해 서울 대구 광주 안양 성남 청주 정읍 부여 등 9개 지역에서 국민정서 순화를 위한 불법포교 및 봉사활동을 펴게 되며 올바른 교통문화정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한국운불연 각 지회는 매월 한차례 정기법회를 갖고 신심을 증장시키는 한편 해당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운불연은 또한 장애인, 집이 많은 승객등 일반 운전기사들이 꺼리는 승객이나 기피하는 지역의 승객을 태움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며 솔선수범하는 운전자라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모임은 지난 7월 대전에서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전국모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11월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규약을 확정, 창립총회를 결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명우 기자〉

1백일 계획안 발표
조계종 새해 1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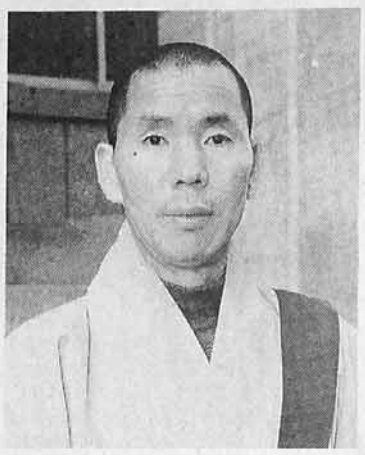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새 집행부의 개혁 청사진을 펼쳐갈 「1백일 계획안」을 마련한다.

조계종은 「1백일 계획」을 통해 평화적으로 종권을 인수한 새 집행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개혁의 세부내용을 일정등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새해 1월5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에 의해 발표될 「1백일 계획」에는 △새 전국 신도회 조직 △대사면조치 △중앙승가대 이전 재원마련 계획 △불교병원 및 회관 건립안 △성도절 및 4.8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등과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맞는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 △환경 △도덕·윤리회복 △사회복지 등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뷰

선학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



"대화로 해결방안 모색할 터"

조계종 「선학원(사설사암및 법인체)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갖고 법등스님을 위원장에, 간사에 영배스님을 선출하는 등 운영체제를 갖췄다.

특위는 또한 선학원대책소위원회와 대각회대책소위원회로 나뉘어 「선학원~」에 성문 석호 인행 원우스님, 「대각회~」에 지홍 법성 현진 화암스님을 각각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등스님(47)과의 1문1답을 통해 향후 선학원특위의 일정을 들어본다.

-향후 일정은

▲일단 현황을 파악하겠다. 그런후 선학원·대각회 등의 간부진과 만나려고 한다. 선학원이나 대각회나 조계종 소속의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방 쪽에서 조계종의 일방적인 조치로 여겨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조계종 종헌 종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를 주지시켜 조계종의 관장하에 들어온다면 자율권과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겠다.

-지난 85년 조계종 84회 종회부터 선학원 대책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10여년 가까이 별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이유는

▲종헌 종법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못했던 관계로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미진했다. 또 성과를 얻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미약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엔 조계종 새 종헌 종법에 법인체 및 사설사암에 대해 엄격히 권한을 제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하므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등스님은 선학원·대각회등과의 상호 협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로 만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일단 충분한 접촉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경숙 기자〉

무사고기원 청매탑 제막
청원 호국 영축사

충북 청원군 소재 제17전투비행단 호국 영축사(주지법사 법일)는 지난 11일 팔각5층 규모의 청매탑 제막식을 가졌다.

공군 청주기지 보라매들을 위한 청매탑은 "최근 일어나는 환공사고와 지상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위해 세운다"고 취지문에서 밝혔다.

이날 주지법사 법일스님은 인사말에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불심이 결집되어 일체중생이 항상 화평하도록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구미불청 정기총회
새회장에 노진호씨

경북 구미불교청년회는 지난 11일 구미 금강사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16대 회장에 노진호(분도신협)씨 부회장에 윤종배씨가 각각 선출됐다.

경북 대흥사에 화재
건물전소 3천만원 피해

경북 영일군 오천읍 용산2리 14 대흥사(주지 수장스님)법당에서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법당(20평)과 관음전(20평) 등 사찰 건물 2채가 모두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오후 1시께 진화됐다.

새해 사업계획 논의
동국대 동림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회장 성웅)는 지난 5일 조계사앞 초향식당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임원 상견례 및 동문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95년 사업계획안, 신년조례회 안건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문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3월 정기총회에서 '95년 사업 세부계획안'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1월 11일 신년조례회를 갖기로 했다.

동림동문회는 향후 사무실 마련은 물론 동국발전을 위한 후학육성, 사회복지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것으로 알려졌다.

석굴암에서 제야법회
31일, 부산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원(주도법사 성재도)은 오는 31일 경주 석굴암에서 제야법회를 봉행한다. 31일 오후 8시 부산불교교육원 앞에서 출발해 경주 석굴암 타종법회를 시작으로 석굴암을 참배하며, 다음날인 95년 1월1일 불국사에서 아침예불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제자로 살아 가겠어요"

종립 초·중·고생 1천여명 5계받아

무너져 가는 청소년의 도덕을 회복하기 위한 연합수계법회가 동국학원산하 각 종립학교에서 봉행됐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교장 박동만)는 지난 16일 서울 구룡사 만불전에서 '94학년도 합동 수계법회'를 개최, 학생 7백70명, 학부모 30명등 총 8백여명이 계를 받았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회주)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개교이래 최대규모로 전교생의 반수이상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수계식에는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이 염주등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이어 앞서 은석국민학교도 지난 9일 수계식을 개최,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1백20여명이 계를 받았다. 또한 명성여중도 지난달 25일 3학년 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계수계식을 봉행했다.

범종추 해산
불교자주화 기여

종단개혁의 물꼬를 트고, 개혁회의 출범의 모체였던 범승가 종단개혁추진회(공동대표 청화)가 지난 8일 범종추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실천승가회등 8개단체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단식은 3월 23일 결성부터 해단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범종추는 지난 2월 5일 석림동문회 사무실에서 종단상황을 진단하고 서의현 총무원장 3선 반대와 종단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범승가 종단개혁 추진회'를 결성키로 의견을 모아 3월 23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창립이후 범종추는 서의현 총무원장 3선을 저지하는 구종법회로 시작, 전국승려대회·범불교도대회·개혁회의 출범·종헌종법의 통과를 위한 단식정진·제28대 총무원장 선거등에 이르기까지 '불교자주화'를 내세우면서 승가의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도 문화재를 식당사용
원음각 훼손우려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인 관룡사 원음각이 3개월전부터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군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훼손우려가 높아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창녕읍 옥천리 관룡사측은 지난 9월부터 경내에 요사채를 건립하면서 공사장의 인부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원음각 하층(1층) 중심칸을 식당으로 꾸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원음각은 조선시대 인조12년(1634년)에 건립된 기와지붕의 목조 2층건물이다.



"원각사탑 우리가 지킨다"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의 보호에 불자들이 나섰다. 훼손상태가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계의 여론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은 최근 보호시설을 갖추고 정밀 진단과 보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서 지난 11일 「탑골공원 시민모임」이 발족됐다. 또한 원각사 복원추진회도 탑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지문화' 새롭게 정착

불교계 연말 이웃돕기·정진법회등 다양

22일 동지를 앞두고 전국 각 사찰이 지역문화제, 이웃돕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동지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명절로 자리잡고 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날 팥죽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액땜을 하던 민속의 하나이다.

이러한 세시풍속이 불교와 결합하여 보시를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풍속으로 바뀌어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열리는 행사로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가 22일 '동지문화제'를 개최한다.

동지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지역 양노원, 보육원과 경찰서등을 방문해 팥죽을 공양한다.

철원 도피안사(주지 정묵)도 이날 동지법회에 이어 '브완다 난민돕기 자비의 종 모금운동'을 펼친다.

성등구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동지날 성수지역 시립 경노당 노인 4백여명을 초청, 팥죽등으로 다과회를 베푼다.

이외에도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 명주 낙가사(주지 창우)등의 사찰은 기도법회를 마련, 새해에 앞서 정진에 들어간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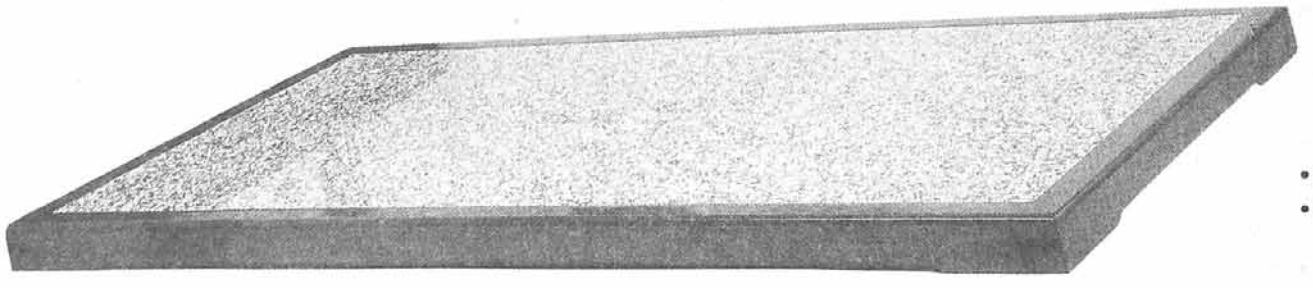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 200×104×8
•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Q마크획득·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전자파장해시험필 EMI 공업진흥청

이런 후 건강칼럼 < 9 >

마 음

스톡홀름 증후군

정신과나 의학적인 용어에 자주 회자되는 말로 증후군이란 말이 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도 "… 신드롬"이란 낯선 외래어를 자주 쓰는데 이말의 뜻이 의학용어에서 나온 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증후군이란 뜻이다. 병으로 앓는 여러가지 형세나 모양을 증세라고 말하는데 이런 증세가 하나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증세가 묶여 일어나게 되 증후군이란 말을 쓰게 된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단어도 따지자면 의학적인 학술용어라기 보단 저널리즘에서 비롯되어 일반화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몇년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은행강도에게 피납되었던 한 여인이 오히려 납치범을 사랑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를 두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톡홀름증후군 같은 증후군을 일으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폭력, 납치, 살인, 강간과 같은 끔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전에 일어났던 지존파의 일당에 함께 가담했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한 여인은 자신의 애인을 살해하는데 가담하여 신용을 얻은 후 탈출에 성공한 여인이고 다른 한 여인은 지존파일당 가운데 한 청년의 애인으로 사랑하는 이의 지시대로 따랐다가 준엄한 형을 받았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스톡홀름 강도사건이 생기 기 훨씬 이전에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생 겼 었 는 데 당시 신문왕 모씨의 무남독녀가 납치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녀가 그 납치범 일당 가운데 한 청년을 사랑하여 함께 강도노릇을 지속 했었던 일도 있었다. 납치범들에 대한 피납자의 이런 반응을 통털어 신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이는 실제의 사랑이라기 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됨으로서 생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연구한 학자들이 밝힌 결과는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공포 앞에서는 사람들은 아주 무력해지고 인질을 벌린 사람에게 극단적인 친근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 있다. 어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일생을 두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고통 받으면서 숨어살고 있을 "정신적 외상" 경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공포·충격이 부른 극단적 사랑

다시 찾은 아들

㊦

주부신행담



엄마노릇 잘 하려고 20년 직장 정리하고…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 친구의 소개로 화성 신흥사를 찾게 되었다. 스님께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부처님 품안처럼 포근한 정담을 주셨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에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게 있어,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를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내 가슴속의 너무 답답한 사연을 스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다. 나의 큰 아들 윤호 얘기였다. 윤호는 럭이나 온순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다. 학업성적도 상위권에 속했고 언제나 내 마음에 들게만 행동을 했었기에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윤호는 폭발을 했다. 윤호가 나에게 대들며 하는 말이 '어머니는 남의 자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이나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온몸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윤호는 학교갔다 오면 책가방을 문짝이 부서져라고 내 던졌고 방문을 닫고 소리소리 지르며 울곤 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르고 타일러도 봤고 같이 울어도 봤고 애원도 해 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윤호의 횡포는 심해졌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0여년 동안 몸담아 오던 직장을 드디어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을 살게 되었다. 윤호가 귀가할 시간이면 책가방을 받아주며 반가이 맞아 주었고 그동안 못했던 엄마노릇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쏟았으나 그것도 잠시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치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은 윤호는 울면서도 공부를 했고 울면서도 책을 손에서 떼지를 않았다. 나는 윤호의 그런 태도에 희망을 걸고 의지를 했었다. 언제나 나는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 초조했었고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안절부절하며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기말시험 때가 돌아오면 온 집안 식구들은 초긴장하게 되었다. 자식이 아니라 상전이었다. 우리 집안은 웃음을 잃게 되었다. 내 자식 험담을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창피한 일이라 속상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스님께 말씀 드렸더니 윤호를 한번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님께 데리고 가게 되었다. 스님께선 우선 천도재를 올려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물론 윤호에게 좋은 말씀과 좋은 글귀를 주시며 많은 설법도 해주셨다. 그뒤로 윤호는 부처님 말씀의 뜻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지 차츰 수그러 들며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나 반가운지 이때다 싶어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천수경 21편을 독송하고 마음으로 부처님께 발원하기를 '우리 윤호가 올바른 인간이 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3년 작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중에 몇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나는 꾹 참고 또 참으며 부처님께 혼신을 다해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나는 기도하는 3년동안 어느 누구의 애경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로지 윤호를 위해 마음 깊이 기도에만 전심전력을 다 쏟았다. 시댁에도 미리 양해를 얻어 생신 때나 명절 때도 당일 갔다 오는 등 목숨을 걸고 전념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윤호는 3년동안 저축해 둔 통장을 내게 주면서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라 신흥사 스님께 달려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풍경시주를 하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후로 윤호의 폭풍우 같았던 언행은 조금씩 수그러져 갔었고 어느덧 3년이 지나 대학입시라는 관문이 다가왔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마음 든든한 믿음은 있었다. 윤호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불안해 했었다.

'우리 윤호가 올바른 인간이 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3년 작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어느날 윤호는 3년동안 저축해 둔 통장을 내게 주면서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 스님께 달려갔다.

김 신행화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신도〉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④

'What are the four vices of conduct that he has put away? The destruction of life, stealing, adultery, and lying. These are the four vices of conduct that he has put away.'

그가 버린 행위의 네가지 악이란 무엇인가? 살생, 투도, 사음, 거짓말이다. 이것들이 그가 버린 행위의 네가지 악이니라.

'By which four motives does he do no evil actions? Evil actions are done from motives of partiality, enmity, stupidity, and fear. But as the Āryan disciple is not led away by these motives he does no evil actions through them.'

어떤 네가지 동기에서 그는 악행을 하지 않는가? 악행은 편견, 증오, 어리석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인의 제자는 이 네가지 동기에 유인되지 않으므로 그것들로 인한 악행을 하지 않는다.

'And which are the six doors of dissipating wealth? Drink; frequenting the streets at unseemly hours; haunting fairs; gambling; associating with evil friends; idleness.'

그러면 재물을 낭비하게 하는 여섯 문이란 무엇인가? 음주; 부적당한 때에 환락가를 드나드는 것; 사교장에 자주 가는 것; 도박;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 게으름이니라.

'These are, young householder, the six dangers of drink; the actual loss of wealth; increase of quarrels; susceptibility to disease; an evil reputation; indecent exposure; ruining one's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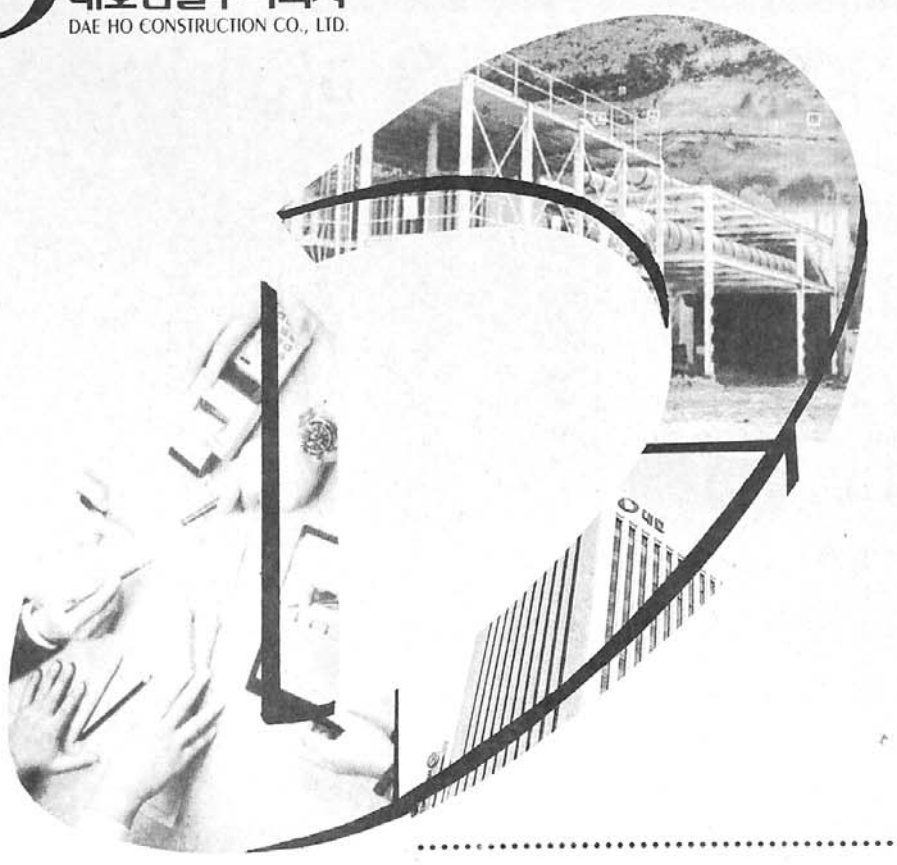
젊은 장자여, 이것들은 음주의 여섯가지 위험이다; 재산의 실질적 손실; 싸움을 더 많이 하는 것; 병에 쉽게 걸리는 것; 평판이 나빠지는 것; 음란해 지는 것; 지혜를 없애는 것이다.

*adultery: 간통, 사음(불교용어)
*partiality: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곧 편견
*lead away: ~을 데리고 가다, 유인하다, 속이다.
*haunt: ~에 자주가다.
*susceptibility: 감염되기 쉬움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 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대호건설주식회사
DAE HO CONSTRUCTION CO., LTD.



2000년을 향한
꿈의 실현,
대호건설의
의지입니다.

미래건설의 신창조를 이루는
대호건설은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풍요를 생각하며,
건설산업에서 첨단통신분야까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 세미냉장


(주)서초케이블 TV


(주)대호헬스랜드